

**일하며 싸우고 있을  
여전히 일하고 있을,**



일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잇드유  
서울직장인회합성회직업당연다

서울특별시

후마니타스

# 차례

---

7	발간사
11	2022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13	2022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경향 분석

---

## 1장 몰랐다, 배웠다, 이젠 말할 수 있다

30	다음 사람
40	선배, 그건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이에요
46	‘여자’라는 코로나
54	새로 입사한 과장은 확실히 괴짜 같은 면이 있었다
66	틈
74	씻을 수 있는 상처
84	나와 내 주위가 행복하게 하는 용기 한 스푼

---

## 2장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와 이직

94	나의 해방일지
102	잘 못 지낸다면 더 좋겠습니다
112	20대 초반 폭력으로 물들었고, 중반 폭력에 저항하다
122	성희롱, 당당히 No라고 외치세요!
128	직장 내 성희롱, 어쩌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이것뿐
134	성희롱 사건, 그 결말은? 부제—부장님은 왜 그랬을까?
144	375일간 걸어온 나의 밤길 이야기

---

### **3장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남성의 경험**

- 156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 162            어머니, 그러니 꼭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 168            내 몸 사용 설명서

---

### **4장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 조직 전체의 문제**

- 180            내가, 남이 겪었던,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일
- 186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 194            나는 불안하다
- 200            그녀를 구하려면 매뉴얼이 절실하다
- 210            사랑, 아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218            병뚜껑 잘 따는 게 어때서?
- 228            계속 변화되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



## 발간사

위드유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세 번째 수상 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81편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가운데 용기와 연대가 되는 순간을 나눠준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총 24편이지만, 수상하지 못한 작품들도 각자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매년 공모전 참여자의 연령대, 성별, 직종 등 성희롱 피해로부터 취약한 상황의 폭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부모 여성, 비정규직 중년 여성, 대면 접촉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험이 다수 눈에 띕니다. 이혼 여성이 경력 단절 후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 마사지사로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가 사업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손님의 성희롱 언행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주변화하는 문제가 성희롱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와 조력자의 경험도 증가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수직적 조직 환경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그 경험을 다룬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성 도우미를 동원하는 회식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 남성, 남성 동료에 의한 신체 접촉과 놀림으로 일상과 노동권을 침해받은 남성,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피해자 지원과 연대로 타의 모범이 된 남성의 에세이를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남성의 경험’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동성 간에도 성적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상급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남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나름의 요령으로 즉각 대처함으로써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해 가는 MZ세대의 다양한 방법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상 생활 속 성희롱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전 참가작의 많은 부분에서 성차별적 조직

문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그런 조직 문화가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에세이 저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널리 알려 다양한 직업군에서 성희롱 예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세이집 발간에 동의를 해주신 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에세이집 발간이 일상 회복의 과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불어 에세이집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센터 실무자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박현이



## 2022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서울워드유상

이지은, <다음 사람>

### 워드유상

이채이, <잘 못 지낸다면 더 좋겠습니다>

익명, <'여자'라는 코로나>

익명, <나와 내 주위가 행복하게 하는 용기 한 스푼>

익명, <내 몸 사용 설명서>

익명, <성희롱, 당당히 No라고 외치세요! >



## 2022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경향 분석

2022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울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공적 기록으로 축적해 온 본 공모전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다. 지금까지 총 390편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문학평론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은 본 공모전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2020년 에세이 공모전에서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회상하게 된 과거의 피해 경험 속에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오늘과 대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어제 사이에서 ‘나는 왜 그랬을까’ 혹은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자문하게 되는 피해 경험자의 진솔하고도 현실적인 마음이 두드러진

작품이 많았다.

2021년 에세이 공모전은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해결 과정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지’ 물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섰던 경험, 연대의 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사건 해결을 위해 회사가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알고자 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나/너/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대주제 아래 응모된 2021년 에세이들은 미투 운동의 큰 물결이 지나간 후에 개별 단위의 조직에서 이어지고 있는 변화의 분위기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2022년 공모전 공모 주제는 ‘너, 나, 우리가 겪은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 ‘직장 내 성희롱과 우리 회사’, ‘바뀌어야 할 직장 내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으로, 성희롱 문제를 둘러싼 조직 구성원들의 다면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조직 문화에 관해 좀 더 폭 넓은 에세이로 다루고자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대면 접촉 서비스, 보건 의료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혼한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비정규직 여성, 중년 여성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예년에 비해 다수 눈에 띈다. 자녀가 있는 이혼 여성이 경력 단절 후 어

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계약 기간 1년 중 6개월을 성희롱에 맞서 싸워야 했던 기록 <다음 사람>은 이러한 경향을 포괄하는 에세이로, 심사단의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인 서울 위드유상에 선정되었다.

## 1. 몰랐다, 배웠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겠다 나선 여러 글쓴이의 용기는 다음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내포한다; 몰랐다, 배웠다, 이제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 등을 통해 배우게 됐고, 연차가 쌓이는 등 자신이 가진 조건 또한 변화하자 드디어 지금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이다.

<선배, 그건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이에요>의 글쓴이는 “직접 겪어보기 전엔 몰랐다”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 밝힌다. “첫째, 당시에는 그게 성희롱인지 몰랐다.”, “둘째, 그때 어렸고, 사회 초년생이었다.”, “셋째,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낙인, 소위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이는 글쓴이 한 사람만 겪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와도 공명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 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역시 ‘참고 넘어갔다’(66.7%)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22.2%) 그랬다고 한다.

처음부터 할 말 다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설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직장 선배이고,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정색하고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다는 <툼> 글쓴이의 말에 공감 못할 신입이 있을까? “당당히 No” (<성희롱, 당당히 No라고 외치세요! >)라고 외치며 불의에 맞서는 결연한 용기는 때론 생계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와 한 쌍이다. 상사와의 관계에 따라 직장 생활의 지속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하급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성희롱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고자 노력한다. <‘여자’라는 코로나>에서는 여성에 관한 편견을 드러내는 나이 든 남성 상사에

게 “할아버지 같다”고 웃으며 받아치는 후배의 반응이 주목 받았다. 해당 내용이 웹툰을 통해 공개되자 9000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런 속 시원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색하고 싸우기 부담스러울 때 참고하겠다”는 댓글이 쇄도했다. 심사에 참여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 중 하나다.”라고 평했다.

사실 “할아버지 같다”는 대꾸는 모든 할아버지가 성차별적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어딘가에 “할아버지 같”지 않은 할아버지가 있다 해도, 윗세대가 갖는 보수적이고 관행적인 성향이 청년 세대에게 부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나이든 남성 상사가 리드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20대 여성 직장인의 임기응변이 홀로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글 속의 후배와 함께 더 나은 대응 방법을 찾아 나가는 연대자가 되어 한다. 할아버지에 부정적인 함의를 두는 표현에 머무르기보다는, 다른 언어를 시도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아요” 라고 받아친다면 어떨까?

## 2.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와 이직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이 재치 있는 말 몇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위드유 센터와 같은 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던 사례, 참고 참아도 멈추지 않아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던 사례가 많다. 이들의 이야기는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결말로 향하게 된다. 개개인의 기지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개인은 조직 바깥으로, 심지어는 관련 직종 바깥으로 계속 밀려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회 초년생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중년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또다시 경력 단절의 위협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을 일터에서 몰아내는 현상이 단적으로 나타났고, 많은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회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해야 했다.

<나의 해방일지> 글쓴이는 지속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퇴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렇게 퇴사하고 나서야 자신

의 전임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던 이유를 깨닫게 된다. 톱니바퀴의 부품이 주기적으로 갈아 끼워지는 것처럼,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여성 직원의 자리에 새로운 여성이 채용되어 똑같이 성희롱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입 직원의 얼굴만 변할 뿐, 가해자와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글쓴이는 해당 업계에서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아예 진로를 바꾼다.

<잘 못 지낸다면 더 좋겠습니다>처럼,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이직한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어 이직을 거듭하는 사례도 있었다. 글쓴이는 “조직을 떠나고 싶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는 단연코 없다.”면서 “이 조직에서 쌓아온 것들을 잃지 않고 마음 편히 일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선택이 이직이나 퇴사 두 가지뿐이라는 현실은 잔인하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끝까지 조직 내에서 버텼지만 건강이 너무 상해 잠시 회사를 물리적으로 떠나야 했던 사례도 있다. <375일간 걸어온 나의 밤길 이야기> 글쓴이는 “테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불안·공포·두려움이” 컸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적응 장애·불안 장애·우울 장애가 악화되어 5개월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새로운 근무지

에 배치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잘 지내고 있음에도 그때의 일을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다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성희롱 실태 조사>로 돌아 보면,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이후 특정한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20.5%),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19%) 등이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어쩌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이것뿐>에서는 동기 3명 중 1명이 성희롱 피해를 밝히자 다른 2명도 자기 일처럼 공감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3명은 모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이직 사유를 독자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희롱 사건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성희롱 사건, 그 결말은?>에서는 사직서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분위기가 전환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사직서를 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터놓고 말하자, 행위자에 관한 소문이 돌게 된 것이다. “신기하게도 피해자인 나의 신상이나 정보는 한 톨 없이 철저히 그의 만행만 소문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자 회사의 상부 조직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숨 쉬듯 생각 없이 내뱉던 못된 입방정은 일절 없

어졌고, 업무로 바쁘게 돌아가는 정상적인 회사 분위기가 비로소 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행실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실에 시선이 쏠렸기에 가능했던 변화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경험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보통은 <375일간 걸어온 나의 밤길 이야기>나 <계속 변화되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처럼 오히려 피해자 쪽이 소문에 시달리게 된다. <다음 사람>의 글쓴이 역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러 인사부 직원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미조치·은폐·비난·모욕·소문 유포 등 갖가지 2차 피해를 겪고 일상에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 3.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남성의 경험

수상작으로 선정된 24개의 에세이 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남성 상급자로 나타난다. 이 또한 전체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행위자의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고, 동시에 상급자, 기관장·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 였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특정 집단만의 문제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은 현재 한국에서 직급이 높은 조직 내 다수자로 보통 남성이 꼽힌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지, 남성 자체가, 혹은 상급자 자체가 잠재적 행위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조직 내 성별 비중 변화, 연령 변화, 역할 변화 등 여러 변수의 역동에 따라 여성 상급자가 남성 하급자에게, 남성 하급자가 여성 상급자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혹은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 행위를 가하기도 한다.

어떤 조직 내에서 특정한 성별, 인종 등의 속성이 지위 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세한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더 대상화되고, 불이익을 받기 쉽다. 만약 누군가 백인으로 가득한 회사에서 유일한 아시아인-한국인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백인 집단에 비해 하급자가 된다. 그가 하는 모든 실수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한국인을 차별하는 명분이 되기도 쉽다. 그런 위치의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고 고충을 토로한다 해도, 해당 조직은 그 직원의 고충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과 퇴사’ 항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구조의 조직에서는 고충을 겪던 소수자 직원이 퇴사한다 해도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다음 타깃으로 정해진다. 모든 직원이 평등한 개별적 존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문화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기 일쑤다. 그런데 이는 조직 내 주류 집단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달성 불가능한 과업이다.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는 여성 하급자들의 집단적인 성희롱 피해 호소에 남성 상급자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모범답안 중 하나로, 상급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에세이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퇴사한 후, 피해 여성들은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 성별, 예를 들어 남성에 쏠린 수직적 조직 환경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여성이라 해서 다 똑같은 여성이 아니라고 <‘여자’라는 코로나>가 알려주듯이, 남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자들끼리 친해지면 원래 그

렇게” 되는 일,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는 일 따위는 없다. <내 몸 사용 설명서>는 남성이 남성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후 느낀 바를 섬세하게 다뤘다. 손희정 심사 위원은 “남성이 자신의 몸에 관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수작이라고 극찬했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 상사의 강요로 참여하게 되는 유흥업소에서의 회식이 사회 초년생 남성들에게는 성적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에세이도 있다. <어머니, 그러니 꼭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의 글쓴이는 여성도우미를 동원하는 남성 위주의 회식 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 남성이다. 글의 말미에서, 글쓴이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남성인 저도 ‘도우미 부르는 게 무슨 성희롱이냐’는 말을 쉽게 뱉는 잘못된 문화와 싸울 것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 4.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 조직 전체의 문제

3년 동안 모인 피해 사례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행위자들은 “고백공격”(〈사랑, 아니 사람이 꽃보다아름다워〉)을 자행하거나 데이트를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의 모습이 “섹시했다”(〈새로 입사한 과장은 확실히 괴짜같은 면이 있었다〉)고 칭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예민하다”고 몰아가는데, 심지어 “익숙해지고 무더질 필요가 있다”(〈나의 해방일지〉)라고 적반하장 격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불편노트”(〈새로 입사한 과장은 확실히 괴짜같은 면이 있었다〉)와 같은 증거물이 있음에도 쉽사리 인사팀을 찾아가지 못한다. 자신의 피해가 외면당하는 경험을 이미 해봤기 때문이다. 회사가, 조직 구성원들이 내편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조직 구성원들이 내 피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혹시 모를 불이익 걱정, 행위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를 온전히 지지하지도, 행위자를 강하게 비판하지도 못하는 현실적 부담감을 이해한다. 그래도 자신이 가진 힘과 과소평가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를 구하려면 매뉴얼이 절실

하다> 글쓴이는 행위자의 동료로서 가졌던 혼란스러운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울시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더 나은 대처 방법을 고민한다. 평범한 사람의 작은 선의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하고,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고쳐 나간다.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성장과 연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회 초년생은 영원히 사회 초년생이 아니며, 상급자가 되어 다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틈>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쌓인 글쓴이는 성희롱 피해 경험을 말하는 2년 차 여직원을 보며 성희롱에 취약했던 자신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의 자신에게 필요했던 대답을 한다.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믿고 말해 줘서 고마워. 지연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자. 내가 같이 해줄게.” <20대 초반 폭력으로 물들었고, 중반 폭력에 저항하다> 글쓴이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당사자였을 때 그토록 원했던 도움이었다.”

“당시에는 성희롱인 줄 몰랐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직장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개인적 대처를 넘어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조직 내 처리 절차 마련, 조직 문화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나는 불안하다> 글쓴이의 말처럼, “특정한 여성이나 남

성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들의 성 문화 및 직장 문화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남이 겪었던,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일>,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불안하다>는 모두 ‘바뀌야 할 직장 내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이라는 공모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왜 여성 직원만 설거지를 하는지, 왜 여성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지와 같은 실마리를 잡고 내려가다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뿌리가 되는 잘못된 구조를 만날 수 있다. 싹이 보였을 때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수위를 조금씩 더 높여가며 함부로”(〈나와내 주위가 행복하게 하는 용기 한스폰〉) 행하게 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근원이다.

군대식 문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꾸밈 노동과 심기 보좌 노동, “혹시 아르바이트”(〈병뚜껑 잘 따는 게 어때서?〉) 했냐며 여성 직원을 유희 접객원으로 대하는 회식 문화, 법적으로는 성희롱으로 규정하기 모호하지만 성차별적임은 분명한 괴롭힘 등,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기반 위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자란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겨진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된 것처럼,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란다”

(<내가, 남이 겪었던,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일>). 그 미래에 위드유 센터가 함께 가겠다. 여전히 일하고 있을, 일하며 싸우고 있을 여러분께 이 책을 바친다.

2022년 11월 30일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한누리

# 1장

**몰랐다, 배웠다,  
이젠 말할 수 있다**

다음 사람

이지은

자꾸만 허벅지를 꼬집었다.

왈칵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 속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 댔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희롱을 당했는지 기억을 살살이 더듬어야만 했다. 나의 지옥을 듣고 있던 인사팀 직원들의 무덤덤한 얼굴은 내가 당한 일만큼이나 공포스러웠다.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던 두 시간여의 조사를 받고 바깥으로 나왔다. 기다란 복도의 간이 의자엔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겠지 싶었던, 아니 마주치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사무실로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에 나는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가 덜덜 떨려 한참을 맨바닥에서 일어서지도 못했다.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를 의심하는 것도 잠시. 진짜 웃음소리였다. 피의자인 그는 웃고 있었고 피해자인 나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욕실로 향했다.

어린 나의 아이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아 차가운 물로 온몸을 바득바득 씻어 내렸다. 하지만 통통 부은 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 엄마? 울었어? 왜?”

엄마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사실대로 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 회사에 엄마를 괴롭히는 아저씨가 있어서 … 그래서 속상해서…”

아이는 해답을 알고 있는 양 목에 힘을 주어 말했다.

“엄마! 그럼 울지 말고 싸워야지! 그리고 이겨야지! 엄마가 울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에 한테 또 그럴 거야!”

열 살 딸아이의 말에 나는 결국 아이를 끌어안고 껍껍 울었다. 한참이나 울고 난 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는 뼈아픈 여정의 도착지까지 가보기로 결심했다.

이혼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1년여 만에 얻은 직장이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계약직이었지만 10년이 넘게 경력이 단절되어 있던 내게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기만한 일터였다. 나이 많은 막내를 자처하며 주어진 업무는 물론 잡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그의 새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

“이혼했다면서? 남편이 밤에 잘 못해 줬나?”

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던 그의 말에 둔기로 뒤통수를

때려 맞은 기분이었다. 듣지 못한 척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회사 메신저는 쉴 새 없이 깜빡거렸다.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할까?”

“처녀도 아니고 뭘 그리 튕겨? 서로 외로운 처지에.”

그러다 보니 업무에 대한 알람이 와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중한 거절도 해 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프린터 앞에서, 탕비실에서, 우연히 들만 남은 사무실에서 그는 나의 뒤로 바짝 달라붙었다. 저질스런 음담패설과 불쑥 일어나던 터치들은 기괴한 꿈의 한 장면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까지 참석하시기에 더는 거절할 수 없었던 회식이었다.

술 한잔도 마시지 않고 경계하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척 내 쪽으로 쓰러지며 나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던 그의 손을 막아 낼 재간은 없었다. 비명 소리는 내 목구멍 안에서만 맴맴 돌았다. 화장실에 들어가 한 시간을 넘게 숨죽이고 있다 아무도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을 새파랗게 지새우고 사수에게만 사정을 털어놓았다.

“아 그 자식. 이 부장 그 자식은 바뀌는 게 없네. 유독 나 이 좀 있고 계약직인 직원만 건드린다면. 이혼하면 더 땡큐라고 했더니? 더러워서 사표 낸 여직원들도 서넛 된다고 하던데. 휴 … 어찌냐?”

그의 메시지가 불쑥 떠올랐다. 자신이 실세라며 자기에  
게만 잘 보이면 정규직도 문제없다던. 부하 직원 중에서도  
가장 약자만을 골라 성희롱을 한 그를 응징하고 싶었다. 아  
니 적어도 지령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  
었다.

처참한 사건들을 인사부에 고하기만 하면 부당한 것들  
이 바로잡히리라 생각했던 것은 온전히 나만의 착각이었  
다. 담당자는 냉담한 어조로 그저 돌아가 계시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수차례를 더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고 난 뒤에  
야 조사가 시작되었다. 6개월 남은 계약직인 나는 낮모르  
는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야 했고, 십수 년을 그곳에서 일  
했다는 그는 그와 잘 아는 부하 직원과 함께 소명을 가장한  
만담을 주고받았다.

신체 접촉 증거를 주시라고, 안 그럼 메신저와 말뿐인데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는 담당자의 반문에 나는 오열하고  
말았다.

“계약직 몇 달 안 남았을 텐데 그냥 관두면 되지…”

“부장님 측근이 그러던데 재가 먼저 꼬리 친 거라던데…”

분리 조치라는 미명 아래 좌천된 것은 도리어 나였고,  
구설수의 주인공이 된 것도 나였다. 너무도 지쳐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싶을 때마다 나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빈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나를 도와 달라고, 다음 타깃은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그러자 비슷한 피해자 두 분에게 연락이 왔다. 이전에 회사를 관두신 분도 소문을 듣고 기꺼이 가지고 있던 성희롱의 증거들을 보내 주셨다. 또다시 인사실 문을 두드렸다. 그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회피한다면 회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에 호소하겠다 당당하게 말했다. 많은 사람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또 다른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더 이상은 혼자 아니었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직원 이후 처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허나 6개월의 정직과 감봉, 그것이 그가 받은 징계의 전부였다. 다른 직원들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조차 전무후무했던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나는 역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짓이겨 놓은, 누군가의 정신과 마음까지 산산이 폐허로 만들어 놓은 그에게 고작, 고작 이리 작은 벌이랴니.

그다음 날 동료들 통해 그가 나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기는 두렵고 버거웠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 그가 있었다. 나를 본 그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었다. 이번 일로 잘못을 알게 되었고 깊이 반성했노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그러니 고소만은 말아 달라고.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알 수는 없었고 그를 용서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그냥 알았다고 말했다. 그를 고소하고 그가 더 큰 벌을 받게 되더라도 나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1년의 계약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성희롱과 맞서 싸웠다.

성희롱을 당했던 끔찍했던 순간만큼이나 임원급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나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시간들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성희롱이란 무서운 일들을 용기 내 알리더라도 오히려 더 큰 편견과 오해까지 겪을 수 있는 사실은 참으로 암담했다. 그때의 시련들은 지금도 아물지 못하는 상처로 남겨져 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더 큰 괴로움과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로 인해 회사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징계에 대한 새로운 사규를 만들었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저 목소리를 내고 안간힘을 써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나를 도와준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나쁜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젓 먹던 힘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어김없이 진실을 데려온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직장 내 성희롱. 그 가운데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현실이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를 꼼꼼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피의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진실은 저 너머로 자꾸만 모습을 감추곤 한다. 성희롱 피해라는 수치스런 일들을 밝혀내야 하는 그 뼈아픈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강자의 편에 서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자신의 지위 뒤에 숨은 그 일그러진 얼굴을 심판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 작지만 함께 모인 우리의 용기와 양심만이 나와 모두를 지켜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작은 목소리와 적은 힘이라도 모인다면, 진정 성희롱이 존재하지 않는, 아니 성희롱이란 단어조차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 도망가고 싶고 차라리 숨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로 나의 힘이 미력하더라도, 나쁜만이 아닌 적어도 다음 사람, 나아가 우리 아이들은 정당한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꿈틀대기를 갈망  
해 본다.



선배,

그건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이에요

박작가

“요즘 애들은 참 드세더라.”

“요즘 친구들은 참을성이 없어.”

“농담이야~ 농담~.”

“우리 때는 더 심한 일도 많았어.”

“이래서 여(남)자는 안 된다니까.”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말이다. 확실히 과거보다 요즘 성희롱에 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특이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성희롱 문제에 민감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희롱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별 관련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삶 주변에 깔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듯 둘로 나뉜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겪지 않은 사람. 그 둘의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나는 그중 직장 내 성희롱을 겪어 본 사람으로서 그쪽의 입장을 말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했니?” 나도 직접 겪어 보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속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

다. 그러나 비슷한 일을 겪어본 다음 생각해 본 결과, 그 이유는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성희롱인지 몰랐다. 생활하는 내내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면서 지내지 않는 한, 내가 지금 들은 언행이 어떤 의도인지 혹은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이 사회적으로도 이해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밥 먹을 때, 업무 중, 출장 중, 그 외 많은 상황에서 내가 당한 잘못된 말과 행동이 그저 농담과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그때 난 어렸고, 사회 초년생이었다. 매일같이 말하는 “오늘 예쁘다”, “옷을 잘 입었네!” 같은 말들에 이상한 불쾌감이 들었지만, 칭찬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용기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도 전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성격을 지녔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나 역시 ‘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라면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곤 했다. 그런데 … 아차 싶었던 건 그 후, 당시 치과 치료를 받고 아파하던 내게 “이가 아플 때 가장

좋은 특효약은 남자랑 키스를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아,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불쾌감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어렸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상대는 경찰관이었다. 그때 머릿속에서 상황을 여러 번 돌려보았지만, 항상 결론은 같았다. 나는 유난스러운 요즘 애가 될 것 같았고, 농담을 농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았으며, 이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문제시되지조차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낙인에 대한 걱정이다. 나는 직장에서 소위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평균 나이 40대 후반인 이 조직에서 20대 후반인 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른 존재로 비치리라 생각했다. 또한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성의 선임은 그런 말들에 웃으며 반응했기 때문에 난 유난인 사람으로 비칠 것이 뻔했다. 어색해질 분위기,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할 조직 분위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이 내 삶에 가져온 파장은 매우 컸다. 상대는 그 말을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직한 지 오래지만, 그 기억이 내게 가져온 변화는 몇 마디 말이 불러왔다기엔 상당

히 큰 변화였다. 처음엔 자책부터 시작했다. ‘왜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했을까?’,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의 침묵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당시에 침묵했던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게 되었다. 사실 여전히 그때의 침묵을 후회하곤 한다. 다음에 들었던 감정은 적대심과 원망이었다. 상대에 대한 적대심과 원망, 조직에 대한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감싸곤 했다. 그렇게 나는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3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그날의 일도 차츰 잊혀질 때쯤 나는 다시 변화했다. 지나간 시간만큼 내공도 쌓였고, 이제는 그런 일들에 반박하고 대처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에게는 선 넘는 농담이 던져지고, 회식이라는 허울 아래 있는 술자리에선 불쾌한 이야기들이 오간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선배, 그건 농담이 아니라 성희롱이에요.”

“그만하세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사실 조직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그런 말을 하는 내가 아니고, 유난인 여성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분위기가 정화되고,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선 넘는 농담은 오가지 않는다. 물론

이런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나 외에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다. 이런 용기들이 모이다 보면 이런 지적이 관행이 될 것이고 조직도 변화할 거라 생각한다. 변화를 위해 한 발짝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반 발짝이라도, 아니면 움찔거리는 반응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나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길잡이가 되어 보자.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해자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줄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주변의 사회 초년생, 신입들이 이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면, 아직도 바뀌지 않은 조직 사회를 만든 것은 나와 동료들이고,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 마디 도와주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나이가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도, 누구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돼도 좋은 사람은 없다. 사회를 바꾸진 못해도, 조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옆 사람이라도 바꾸자는 마음으로 한마디 거들어 보는 건 어떨까.

‘여자’라는 코로나

익명

나는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나쁘게 말하면 강박적이다.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열망을 항상 갖고 있다. 이 완벽주의는 나를 성장시키는 주요 원동력임과 동시에 효율을 떨어뜨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잡아먹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나는 농담 삼아 주변에 ‘이것도 병’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수긍하며 웃어넘겼다.

“넌 진짜 유난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나의 강박에 기름을 부었다. 인터넷에서 본 최악의 후유증 사례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마스크를 두 장씩 껴고, 직장 동료의 식사 권유를 모두 거절했으며, 일을 하다가도 확진자 알림이 오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소독용 물티슈로 손과 책상을 닦았다.

그런 나에게 부장님이 말했다.

“여자들은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건 이상한 말이었다.

나는 평생 유난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다.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각도를 맞출 때는 엄마조차 유난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유난은 나의 특징이지 모든 여자의 특징은 아니었다. 당장 다른 부서의 여자 상사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짧아져 아쉬운 눈치였다. 그런데 우리 부서는 여자가 한 명이라서 어느새 내가 여자의 대표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황해서 평소 그랬듯이 웃어넘겼다. 이 대 처는 부장님에게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는 내가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여자들은 왜”로 말을 붙였다. 여자들은 왜 그렇게 깔끔 떠느냐, 여자들은 왜 하루 종일 거울만 보느냐, 여자들은 왜 숫자에 약하냐... 거울 본 이유를 변명하자면 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았는지 잠깐 확인한 것이었고, 숫자에 약한지 아닌지를 굳이 따지자면 숫자는 괜찮은데 엑셀에 약한 편이었다.

부장님이 악의로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니 젊은 여자 사원에게 어떤 주제로 말을 붙여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도 어리숙하다는 점이였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어떤 식으로 비판적 피드백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고 웃어넘기기만 했다. 그걸 가장 후회한 날은 내 아래로 갓 대

학을 졸업한 여자 후배가 들어왔을 때였다.

그 후배가 출근 첫날에 책상을 물티슈로 닦을 때 — 심지어 소독용 물티슈도 아니었는데 — 부장님이 말했다.

“여자들은 왜 그렇게 책상 가지고 유난이야? 그럴 시간에 표 작성하는 법이라도 익혀야지, 원.”

그 말을 듣는데 엑셀로 표를 만들다가 실수해서 부장님에게 한 소리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올라와 기분이 뒤죽박죽 망가졌다.

후배의 업무 능력은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전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여자’라는 틀에 맞추어 잘려 버렸다. 그리고 그 형편없는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 개인의 약점은 어느새 코로나처럼 모든 여자를 감염해서 ‘이래서 여자는’이라며 여자들을 격리할 이유로 둔갑해 있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후배는 언짢은 기색을 비추거나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해 항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다는 듯이 깔깔 웃었다.

“아, 뭐야. 할아버지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

이후로 한동안 “할아버지 같아요”는 우리 부서의 밈이 되었다. 농담을 주고받을 때 할아버지가 빠지지 않았고, 내

별명도 어느새 “여자들은 왜”가 아니라 결벽증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갓 입사한 신입 사원의 한마디가 우리 부서의 ‘여자’를 바꾼 것이다.

3개월 뒤 이 후배는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날에 나는 후배에게 그때 그렇게 대처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원래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니 그런 사소한 해프닝은 기억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아, 입사 첫날이요?” 라고 되물으며 당시의 일을 떠올렸다.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저는 선배를 두고 혼자 도망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 말은 나를 꾸짖는 동시에 복돋았다. 내가 계속 자책하며 스스로의 처지만 한탄하고 있을 때 그는 주변을 보며 행동하고 있었다. MZ세대 특유의 당돌함이라고만 생각한 그의 말은 사실 그를 좌절시키는 수많은 허들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나는 여전히 어리숙했지만 직장에서 성차별적인 말을 들으면 조금씩 대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기분 나쁜 티만 냈지만, 하다 보니 후배처럼 유머로 받아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끔은 에세이로 기록할 만한 고상한 설득도 시도하게 되었다. 다음 후배에게는 성별과 상관없이 역

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주고 싶었다.

물론 언제나 기분 좋은 대답만 돌아오지는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도 많다. 하지만 내가 계속 피드백을 보내자 상대도 바뀌었다. 내 말에 진심으로 동의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내게도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나를 대하는 부서 내 모든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 최소한 부장님은 ‘할아버지’ 소리가 싫어서라도 여자 운운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중요했다.

과거의 나는 성차별적인 말을 들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데 괜히 대응했다가 페미니즘에 먹칠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응하기를 포기했다. 페미니즘에 잔뜩 먹칠해 본 다음에야 알았다. 시계가 멈췄을 때 필요한 것은 시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건전지인 것처럼, 성차별적인 말에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응할 용기였다. 윤리적으로 고결하거나 역사 선생님처럼 페미니즘에 해박하지 않아도, 나는 내 다리를 여자라는 침대에 맞추어 자르려는 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

이런 일은 일하는 여성에게 빈번하게 벌어진다. 여자 개인의 행동은 우스꽝스럽게 과장되거나 축소되어서 여자 전체를 대변하는 무언가가 된다. 그러나 나라의 절반은 여자

다. 여자를 숫자에 약하고 하루 종일 거울이나 보며 깔끔  
떠는 존재로 간주한다면 나라 전체의 노동력을 절반이나  
손해 보는 것이다. 여자에 대한 편견을 부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 좋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여자  
들은 따로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재능 자산  
을 개발해 놓았고, 남자와 같은 보상만 주어진다면 얼마든  
지 직장에 헌신할 테니 말이다.

만약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서워진다면 옆에 있는 다른  
여성을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더 이상 웃어넘기지 않고 나  
를 제한하려 하는 프레임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  
렇게 할 수 있다.



새로 입사한 과장은  
확실히 괴짜 같은 면이 있었다

익명

새로 입사한 과장은 확실히 괴짜 같은 면이 있었다.

내가 존경하는 팀장님 친구의 동생이라던 그는 2남 중 막내로 태어나 남중, 남고, 공대 학사, 석사, 박사, 군대를 거쳐 이 남초 회사로 오게 되었다.

한편, 입사 이래로 나는 사무실 서랍에 ‘불편 노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남자 비율 90%에 육박하는 회사 내에서 막내 여사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작은 몸부림이었다. 회사 아저씨들이 내 앞에서 레이싱걸 얘기를 하거나 여자가 나오는 노래방 얘기를 하면 나는 몰래 ‘불편 노트’에 그 일화를 적어 놓았다. 이는 혹시 나를 보호해야 할 때가 생기면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불편한 순간에 대한 해소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괴짜 과장은 입사 첫날부터 원피스를 입고 온 나에게 “남자 만나러 가냐”라고 묻더니, 일주일이 되자 업무 시간 중 나에게 남자 볼 때 어떤 면을 보는지 물었다 — 키, IQ 그리고 성기.

이날 괴짜 과장은 신혼인 회사 동료에게 무례한 성적 농담을 던지고 나에게 무슨 이유인지 모텔 플랫폼 ‘야놀자’의 로고를 굳이 보여 주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280을 갖고

남자 키, IQ 그리고 성기 길이로 나누어 보라는 얘기를 했다. 나는 순식간에 ‘불편노트’ 세 장을 그 괴짜 과장에게 할애하게 되었다.

불편했다. 하지만 불편해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퇴근 후 고민했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고 팀장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왔고, 평소 여장부 같던 막내가 우는 모습에 팀장님도 당황하신 눈치였다. 조용히 들어서 회의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인사 팀장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다. 당황한 팀장님과 나는 문을 닫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인사 팀장님은 나의 직장 상사를 따로 불러냈으나, 우리 둘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아 대충 둘러대고 말았다. 팀장님은 괴짜 과장에게 주의를 주었고, 그가 나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물론 사람 버릇이라는 게 무서워서, 한 번에 고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팀장님에게 한 소리 들은 후 기분이 상했는지, 그는 종종 나에게 “예민하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도 그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노력이 가상해서 나는 그냥 넘어갔다. 소소하게 불편한 발언들은 늘 있었지만, 나도 너무 “예민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던 터라 못 들은 척했다. 내가 회식 때 들었던 코멘트를 제외하

면 말이다.

과장은 회사 동료들과 소규모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나에게 술 마시는 모습이 “섹시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다. 그의 한 마디가 끝나자 술자리는 순간 조용해졌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두 남자 동료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너무 당황해 얼어 있었다. 시간이 잠시 멈추어 섰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무력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반년쯤 흘렀을까, 미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 내가 운전을 못해서 미안하게도 과장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장장 6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이동하는 날 아침, 나와 괴짜 과장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괴짜 과장은 잠이 잘 안 깬다며 나에게 “자극적인 것 좀 틀어놓을게”라고 통보했다. 무슨 상황인지도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과 연결된 차내 스피커에서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당황했다. 몸이 굳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할지 몰라 참으로 불편했다.

캘리포니아 사막 한복판,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과장해서, 만약 과장이 고속도로 위에서

나를 해치고 버리고 간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만큼 허허벌판이었다. 게다가 나는 운전도 할 줄 모르니 더 큰일 날 노릇이었다. 과장이 살짝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어색해진 기류를 눈치챘는지 괴짜 과장은 머쓱해하며 “좀 그런가?”라고 묻더니 오디오를 껐다.

하지만 괴짜 과장의 선 넘는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나는 출장 내내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괴짜 과장은 머리카락이 보이면 성적으로 자극되기 때문에 히잡이 강간을 방지한다는 얘기를 했다. 긴 머리를 풀고 있던 나는 그와 단둘이 차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했다. 또 그는 운전 중 나에게 동거, 성매매, 포르노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편 한 여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섹스 테이프 유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나는 왜 해외 출장까지 와서 과장과 단둘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위태롭기는 했지만, 무사히 마지막 날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던 중, 괴짜 과장은 나와 친한 회사 여자 선배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며 갑자기 그 선배의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폭발했고, 과장은 나에게 “그럼 회사 일만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고 성을 냈다. 그와 나는 그 이후로는 말 한마디 섞지 않

고 서울로 복귀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사무실에서 봐야 하는 사이였기에 결국 서로 화해를 했다. 괴짜 과장이 먼저 나에게 메신저로 서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다며 말을 걸어온 것이다.

또 몇 주가 지났을까, 사무실에서 다시 야한 농담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러다가 그 괴짜 과장이 적반하장 격으로 나에게 입조심하라는 경고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나는 참고 참고 또 참아 온 분노를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제는 정말 인사팀에 가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날짜별로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괴짜 과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메신저로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남기곤 했는데, 그 기록도 참고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모두 회사 문화에 경악하며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한 직장 동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에게 인사 팀에 가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 비서가 담당하던 임원에게 이상한 사진을 전송 받고 인사 팀장님에게 갔더니 인사 팀에서 오

히려 그 비서를 닮았다는 것이다.

겉이 낫다. 회사가 과연 나의 편을 들어줄까 확신이 들지 않았다. 인사 팀장님이 여자분이셨고 나를 챙겨 주시는 대학교 선배였음에도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았다. 또, 내가 일을 크게 키우면 친구의 동생인 과장을 회사로 추천해 채용한 팀장님이 곤란해지실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질 것을 알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더 편안할지 고민했다. 고민하던 나는 결국 인사 팀에 가지 않았고, 한 번 더 참아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주기도 전, 괴짜 과장은 이직을 한다고 나에게 알렸다. 당황스러웠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괴짜 과장은 하루 만에 짐을 싸서 책상을 비우고 떠났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나와 팀장님 둘이 남게 되었다. 팀장님은 나와 잠깐 이야기하자 하시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팀장님은 그 괴짜가 법인 카드를 적절치 못한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를 했다. 회사의 자산으로 도박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나가게 된 것이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마냥 정신이 혼미했다. 내가 회사 동료와 잘 지내고 회사와 팀 내 불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아까웠다. 나를 맞춰 보려고 애쓴 나의 자원이 낭비

된 기분이었다. 그가 이렇게 회사를 나가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데 쓰지 않았을 것이다.

괴짜 과장이 회사를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님도 이직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부사장님과 면담이 잡힌 날, 나는 회사 임원에게 그 동안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알렸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부사장님께서서는 나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런 사안은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슈화하기 위해 임원 모임에서 공론화한 것은 물론, 인사 팀장님으로 하여금 나와 상담을 하도록 주선하셨다.

인사 팀장님과 대면으로 만난 날, 나는 회의실에서 내가 울던 날을 기억하시냐고 여쭙 보았다. 당시 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울었다고 둘러댔지만, 실은 사내 성희롱으로 불편했던 것에 대해 털어놓는 중이었다고 고백했다. 우려와 달리 인사 팀장님은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셨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원 시절 겪었던 여러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들려주시며 나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 주셨다.

몇 달 후, 나는 두 명의 여자 신입 사원 후배들을 맞이하

게 되었다. 후배들이 입사한 첫 주, 나는 확실히 조언을 해주었다. 혹여나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거든, 겁내지 말고 회사에 알리라고. 회사와 인사 팀장님은 너희들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니,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거부 의사 표현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희롱 당시에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다면 더욱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아주 자세히, 시시콜콜하다 싶을 정도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문제 제기 후 2차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하지만 나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성희롱이 이어지거나, 참아도 그때의 기억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은 살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 제기는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의미

의미

“그러니까, 김 과장이 지연 씨한테 몸매가 좋다고 했다는 거지?”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며 입사 2년차 여직원이 조 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그래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최대한 낮은 어조로 차분하게 되물었다.

“네, 처음엔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이 예쁘다, 잘 어울린다...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반복되다가 몸매가 좋다고... 칭찬이려니 넘기기에 불편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연 씨, 김 과장이 하는 그거, 칭찬 아니야. 성희롱이야.”

내가 사뭇 단호한 투로 말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내 앞에 여직원은 혼나는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동그랗게 커진 눈에 약간의 당혹감이 읽혔다.

“성 ... 희롱 ... 이요?”

뉴스나 사내 교육에서 익히 들어 왔던 단어지만 간신히 입 밖으로 꺼내 보는 듯이, 그리고 이제껏 한번도 말해 볼 일 없었던 금기어인 것처럼, 그녀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낮설게 되되었다. 첫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민주 씨,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돼.”

내가 입사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최 과장이 한 말이다. 다른 지역 영업부에 근무하는 최 과장이 2주에 한 번 본사로 출근하는 날이 있었는데, 출근길 인사 끄트머리에 이런 당황스러운 말이 따라온 것이다. 주위에는 이제 막 사무실에 들어서는 직원들이 여럿 있었다.

“어...”

나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아하하”하고 어색한 웃음으로 넘겼다. 직장 선배이고, 몇 번 본적도 없는데 정색하고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다. ‘오빠’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곱씹어 봐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항상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스레를 잘 떠는 사람인지라 신입 사원인 나에게 친근감을 표현한 거겠지, 하고 말았다. 당시 내겐 조직에 적응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선배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 과장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게 유지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 사원 환영식이 있었다. 이 행사는 ‘사발식’으로 시작되었다. 임원들이 식당에서 가장 큰 그릇에 소주나 맥주를 가득 따라 주면 신입 사원들이 한

줄로 서서 ‘사발’을 단숨에 마시는 것이다. 모든 신입 사원이 두려워하는 시간이었고, 더욱이 술을 잘 못하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넘어가지 않는 술을 꾸역꾸역 삼키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즈음 최 과장이 옆자리로 왔다.

“민주 씨, 나 먼저 일어나려고 택시 불렀는데, 가는 길에 내려 줄게. 같이 나갈까?”

“어 ... 그래도 되나요?”

“응, 괜찮아. 가방은 내가 밖에 옮겨 놓을게. 화장실 가는 척 나와.”

먼저 자리를 일어난 최 과장의 뒤를 따라나서는 순간 불편듯 어떤 망설임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져 나올 것처럼 뒤틀리는 위장을 견디며 앉아 있기는 어려웠다.

“과장님 감사해요. 저는 가까운 지하철에 내려 주시면 돼요.”

“그래? 기사님, 우선 가까운 역으로 가 주세요요.”

택시 조수석에 앉은 최 과장은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전공을 했는지, 남자 친구는 있는지.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서늘한 밤공기에 열을 식히며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최 과장에게 답했다. 회

식 자리를 먼저 나온 것이 처음이라 관찮을지 걱정이 됐지만 다들 얼큰하게 취해 있으니 나 하나 없어진 것쯤은 눈치 못 챌 수 있겠다 싶었다. 여러 걱정과 안도를 오르내리고 있을 때였다.

“기사님, 근처에 숙소 많은 곳으로 가 주세요.”

최 과장이 택시 기사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려면 유턴해야 하는데.”

“네, 가 주세요.”

찰나에 택시가 중앙 차선을 넘어 달려왔던 길을 빠른 속도로 되돌아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겨우 식어 가던 술기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는 최 과장과 나를 어느 모텔촌 앞에 두고 무심히 떠났다.

“아 과장님,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 씨, 내가 많이 취해서 그러는데 방까지만 데려다 줄래?”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내가 걸기가 어려워서 그래. 나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

“저 정말 죄송한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 씨 너무하네. 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까지만 데려다 달라는데, 어려워?”

조금 전까지 두 발로 멀쩡하게 서 있던 최 과장은 몸을

좌우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두루 인정받는 최 과장이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후배들도 잘 챙기는 선배였고, 출장길에 두 아이 선물을 챙겨 오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앞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오빠’가 될 수는 없는 사람과 네온사인이 현란한 모텔촌 입구에서 있는 상황이라니. 이번엔 오장육부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말겠다는 듯이 요동쳤고 살갓에는 바짝 소름이 돋았다.

“가지 마. 방까지만, 아니 입구까지만 같이 가 줘. 내가 몇 호에 있는지만 확인해 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써야 했다. 최 과장은 돌아서는 나를 붙잡아 끌었다. 한바탕 실랑이를 치르고 난 후에야 최 과장은 붙잡고 있던 나의 팔을 놓았다.

“택시 타고 가.”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건네는 최 과장을 등지고 큰길로 빠져나왔다. 이후에 최 과장은 미안하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몇 번 보내왔다. 회신하지 않았다.

이 일로 생긴 상처를 꽤 오래 숨기고 있었다. 택시를 함께 타겠다고 따라나선 것, 모텔촌 앞에서 내린 것 등 그 모든 상황에 명석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내 탓인 것 같았고,

나에 대한 원망이 날카롭게 상처를 찔렀다. 사내 성 고충 상담원을 찾아가 볼까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도 없었고, 신고 후의 과정도 막막하게만 보였다. 한참 후 친분 있던 선배에게 겨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네.”

선배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민주 네가 평소에 과장님들한테 잘 웃고 그러긴 했었지. 최 과장이 오빠 어찌고 했을 때도 그랬고.”

“최 과장님이 오빠라고 부르라는 얘기했을 때 선배도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 네가 웃고 말더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최 과장과의 일 이후로 처음 흘러나온 무엇이었다. 내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온 일이었건만 타인을 통해 “네 잘못이 맞아”라고 전해 들으니 꼭꼭 집어삼키고 있던 뭔가가 터져 나왔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 탓이 아니야.’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탓하는 선배의 말에 내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고,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퇴사를 결정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결정이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고 불편을 느꼈으면 성희롱인 거야. 지연 씨가 김 과장한테 성희롱 피해를 받은 거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

여전히 내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지연 씨에게 말을 이었다.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믿고 말해 줘서 고마워. 지연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자. 내가 같이 해줄게.”

지연 씨의 동그란 눈에 그렇그렁 눈물이 맺혔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하 관계, 또는 동료 관계 이면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믿음이라는 성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불편감을 부정하기도 한다.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화살을 자신에게 돌릴 때도 있다. 또 자신이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 자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서 있는 또 다른 나와 지연 씨가 있다면 나는 다시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좋다. 당신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씻을 수 있는 상처

익명

인생의 세 가지 복을 뽑으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첫째는 건치, 둘째는 늦게 달힌 성장판, 셋째는 불행을 비껴가는 운.

유감스럽게도 앞의 두 가지 복은 나를 비껴갔다. 금니와 아말감을 씌우느라 여태껏 치과에 쏟아 부은 돈은 천만 원 가까이고, 우유에 멸치를 말아먹는 노력에도 키는 156.6센티에 멈췄다. 그래도 희망적인 사실은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됐다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크고 작은 고초들 외에 비극이라 불릴 만한 큰 불행은 다 기적적으로 피해 갔다는 점이다. 속초 여행을 가던 중 일어난 5중 추돌 사고에 가족들이 전치 4주를 진단받을 때 나는 놀란 가슴만 쓰다듬었을 뿐, 홀로 멀쩡한 몸으로 걸어 나왔다. 볼거리, 아폴로 눈병 같은 유행성 전염병이 학교에 속수무책으로 들이닥쳤을 때도 나는 감염자 명단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가 세 번째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믿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A 씨가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신입 사원 환영 회식 때였다. 나는 일명 ‘알코올 찌질이’였지만 선배들이 건네는 술을 꿀떡꿀떡 받아먹고 있었다. 술잔이 꼭 “너도 우리와 한

배를 타보지 않을까?”하고 묻는 ‘조직’이라는 환영 열차의 수속 절차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손길을 타고 채워지는 술잔에 해룡대고 있을 때, 내 눈앞에 물 한잔이 배달됐다. 같은 테이블 대각선에 앉아 사람들 물수건을 챙겨 주던 서글서글한 용모의 남직원, A 씨의 호의였다. 금방 된장찌개에 코를 박을 것 같은 동기를 살뜰히 챙기면서도,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주도 문화를 선도하는 선배를 웃는 얼굴로 거절할 줄 아는, 그야말로 ‘강강약약’의 표본 같아 보였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A 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무심하게 대령된 물 한 컵이 ‘그 역시 그렇다’는 시그널이라 믿으며.

‘직장 내에서도 은따 문화가 있다던데...’ 나는 직장 생활에 걱정이 많았다. 소심함으로 무장한 채 보냈던 학창 시절처럼 직장에서도 관심받지 못한 채 지낼까 봐 초조한 마음에 심장박동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다가 말을 걸어 주는 선배의 질문에 그만 신트림으로 대답해 버리며 ‘흑역사’를 생성하는 동안에도 A 씨는 여유로워 보였다.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알맞은 형태로 있는, 존재 이유를 굳이 증명해 내지 않아도 그 누구도 의구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나서서 술자리를 주도한다거나, 술기운에 자총수를 두는 타입도 아니었다. 그는 간단한 규칙을 따랐다. 선배들

이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 잘하기, 칭찬은 칭찬으로 되갚기, 두 번의 질문이 들어오면 한 번은 역질문하기. 중도의 미덕을 아는 동료랄까, 분위기의 흐름을 탈 줄 안달까. 선배들의 농담에 짓궂은 미소로 화답하는 모습마저도 적당히 곱살가워 보였다.

A 씨와 단둘이 맞닥뜨린 건 2호선 환승역,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늦게 보내 미안하다며 사수 선배가 택시비 2만 원을 손에 쥐여 주었다. 나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했던 때라 왕복 2시간 거리까지는 걸어 다니는 두벅이족이었다. 받은 2만 원은 고이 접어 주머니에 모셔 두고, 교통 카드를 꺼내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탔다. 두 정거장. 단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집에 갈 수 있는 환승역에서 나는 막차가 끊긴 줄도 모르고,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렸다.

고요한 역내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이상한 낚시를 느낀 것도 사실이다. 평소 같았으면 스마트폰 지하철 어플로 막차 시간을 확인했을 테지만, 지독한 술기운이 올라온 터였다. 그대로 역 벤치에 뺨을 버리고 싶을 만큼 피곤했다. 어찌면 불길한 예감을 애써 외면하려는 안 좋은 습성 때문이겠는지도 모른다. 한참을 멍을 때리다 일어섰는데, 옆에 나와 비슷한 음식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날 바라보고 서 있었

다. A 씨였다.

“괜찮아요? 많이 취해 보여서 따라와 봤는데.”

따라왔다고? 날?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A 씨 집 방향이 어디였더라 ... 생각하는데 돌연 A 씨가 강한 힘으로 팔뚝을 잡아당겼다. 싸한 촉을 동반한 불안한 냄새가 엄습했다. 청소 안 된 지하철역의 악취리라, 애써 그렇게 여기며 나는 A 씨에게 의사를 표했다.

“괜찮아요.”

“차도 끊겼는데,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야.”

역 밖으로 나가려 발걸음을 돌린 내 손목을 A 씨가 별안간 돌려세웠다. A가 허리를 껴안자 벌레가 전신을 기는 것처럼 근질거렸다. 그러는 와중에도 나는 혹여 A 씨의 선한 호의를 내가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왓지 모를 자괴감이 들었다. 10센티도 안 되는 간격에 얼굴을 맞대고 A 씨가 말했다.

“야, 너, 오늘, 집에, 못, 가.”

혹여나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일까? 친절히 또박또박 들려준 불친절한 메시지에 온몸이 떨려 왔다. 멈춰 버린 듯한 시간에 비해 무서운 속도였다.

‘호랑이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오늘 집에 간다. 집에 보내 주세요. 제발, 제발요.’

야속하게도 천지신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정말이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 호감 어린 시그널에 내가 ‘미소’를 지었다는 건 ‘수락’의 의미고, 팬 찰다는 ‘거절’은 괜히 한번 튕겨 보려는 ‘술수’라고.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여서 쉽게 보였나? 그게 아니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나? 그것도 아니면, 마땅히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동안 피해자인 내가 나 자신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를 하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모든 분노, 죄책감, 모욕감, 후회, 부끄러움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몫이었다. 나는 상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연고도 발라 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수치심을 느껴야 할 상대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길 바랐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책임’을 지는 일. 아주 당연하지만, 당

연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일이었다.

내가 A 씨를 징계 사유로 회부하고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동안, 괜히 굽어 부스럼이라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못사람들도 있었다.

“강한 거절은 긍정이나 마찬가지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

그러나 거절은 거절할 권리를 가진 자의 명백한 거절일 뿐이고, 누군가 함부로 열 번 도끼질하는 동안 나무는 수십 번 생채기가 나고 아파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런저런 소문과 자괴감으로 결국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가 남는 선례가 많은 이 싸움판에서, 나의 작고 큰 용기는 어찌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비수 같은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란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위로의 말이랍시고 뱉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집어치우시길. 죄를 지은 이는 벌을 받을 것이고, 상처는 씻겨 나갈 거다. 다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잘못된 관행에 침묵으로 동의하지 않기를.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기를. 내가, ‘우리’가 함께 바뀌 가야 한다.



Q. 업무 후 술자리(회식/워크숍/출장/외근)에서 일어난 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A. 업무 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루어질 것, 즉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해당 언동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 시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 이후라도, 회사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장소적으로 직장 내에서 시간적으로 업무 시간 중”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식, 워크숍, 출장, 외근 모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면담이나 회식 등 업무상 시작된 회식 자리가 자리를 옮겨 이어져 계속된 경우, 비록 공식적인 회식 이후에 일부 인

원만 참여한 술자리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식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언행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나와 내 주위카  
행복하게 하는  
용기 한 스푼

익명

저는 동네 조그만 치과에서 일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주로 여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평상시 성희롱이라 생각되는 처사를 많이 겪어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희한한 일을 겪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저보다 열두 살이나 어리고 성격이 아주 유별난데다가 인격 모독,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도 자주 하지만, 다행히도 성희롱이라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중 식염수를 주사기에 담아 수술 부위에 뿌려 줘야 할 때가 있는데요, 시야도 나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비좁기 때문에 주사기를 들고 겨는 다음 뿌려야 합니다. 이때 준비 자세만 하고 있는데도 원장님이 아직 뿌리지 말라며 “아직, 아직”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주사기를 겨누고 있다가 발사를 한번에 하느라 아주 애를 먹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원장님이 쓰아 대는 모독과 비하 발언을 한 귀로 피해 가며 평화롭게 임플란트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문제의 그 시점에서 원장님이 “지퍼 내리고 싸야지, 지퍼도 안 내렸는데 막 쏘지 말라. 남

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고 화장실에도 쓰여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던 표현인데 원장님이 갑자기 어디서 보고 배운 것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놀랐고, 또 불쾌했습니다. 환자분도 듣고 있을 텐데 환자분께 죄송했고, 사실은 컴플레인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불쾌했지만, 수술 중이라 환자도 있는데 신중해야 할 임플란트 시술 도중에 제 불쾌함을 바로 표현할 수 없었고 환자 눈치도 많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듯했습니다. 70대 할머니로 연세가 있으신 터라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알아들었어도 그 말에 불쾌감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플레인을 안 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우선 들었지만, 그런 언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상황도 언짢았습니다. 수술 후 동료 직원과 함께 “도대체 원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너무 불쾌했다, 이걸 바로 얘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나누고 얘기할 기회를 엿봤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 이틀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틀 후, 다음 수술 시간. 이번에도 원장님은 수술 중에 “아직 오줌 싸지 말라”며 “지퍼도 안 내렸는데 싸면 어떡하냐?”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쾌하지만 수술이 먼저였

기에, 환자분 듣기 민망한 소리라 괜히 “입 좀만 더 크게 아  
하세요. 힘드시죠? 어금니 뒤쪽이라 더 힘드시네요. 조금  
만 더 힘내 볼게요” 같은 아무 말을 건네며 원장님 얘기를  
덮으려고 했지만, 원장님은 아랑곳없이 같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원장님, 그런 얘기는 수술  
시 하는 대화로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잠깐 쉴 때 환자분이 — 이분은 60대  
남자 환자였습니다 — 물어볼 게 있다면서 “아까 그 지퍼  
내리고 쏘고 하는 게 뭘 말이나?”고 물었습니다. ‘아, 올 것  
이 왔구나, 다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유 죄송합니  
다. 수술 도중에 물 뿌려 줘야 하는 때가 있는데 원장님께  
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정중하게 사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오히려 재밌는 표현이라며 좋  
아했습니다. “몰라서 물어봤던 게 아니라, 너네가 하는 말  
다 알아들었고 무슨 의미지도 다 알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류의 이야기야. 아유 신나 계속하자고…”라는 뜻의 아주  
재미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싹 가시고 원장  
님에게 받은 불쾌감과 다를 게 없이 또 화가 났습니다. 아  
무리 환자라지만…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눈을 한번  
감았다 뜬 다음 목소리를 키워 “이게 재밌으세요? 저희는  
하나도 재미없어요”라고 말했고, 이후 아무 일 없었던 듯

수술을 끝내고 환자분 수납도 마무리 지어 보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원장님께, 일부러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딱 집어 재현해 “‘지퍼’, ‘오줌’ 이런 표현 안 하셨으면 합니다.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번 할머니 수술하실 때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저번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별생각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환자분께 말하는 걸 들었는지, 원장님은 마치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오버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알겠다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만으로도,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말이라도 내게 뭔가를 상상하게 하고, 그 떠오르는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성적 수치심이 아니어도 못 볼 걸 보게 되는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농담을 주고 받을 만큼 편하고 친한 사이도 아닌데, 더군다나 예의를 지켜야 할 직장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또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이에 그런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사회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도 별생각 없이 하다가 지적을 받으니 알아차리고, 시정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며 고치려는 자세와 성의라도 있으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원장님의 행동을 보고 불쾌했던 제 기분도 사실 다 정리되기도 했고요.

이번 일을 겪고 또 이 글로 옮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그러지 마시라, 불쾌하다”라고 원장님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환자분에게 말하는 게 더 힘이 든다는 점입니다. 환자는 내가 화내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나는 의료인이고 상대는 환자인데, 환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친절로 대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말할 기회도 없어지는데…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고, 급발진에 필요한 만큼의 큰 에너지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환자분께 “이게 재밌어요? 저희는 하나도 안 재밌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원장님께 “그런 표현 아주 불쾌합니다.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환자도 — 그 환자는 원래 재밌지도 않은 농담을 잘하던 분인데 — 원장님도, 아마 수위를 조금씩 더 높여 가며 함부로 말을 했

겠죠. 나는 ‘아 그때 말할 걸’ 하며 계속 후회하고, 며칠 동안 더럽혀진 기분으로 짜증 가득한 일상을 보내면서 내 주위에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잔뜩 풍겼을 것이고, 내 가족, 직장 동료, 원장님과 환자에게도 이 부정적인 기운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는 또 나에게 받은 만큼 내게 돌려주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결국 인간관계도 망치고 일도 어그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해 봐야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내 속이 터져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바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번보다는 더 작은 용기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장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와 이직

나의 해방일지

익명

## 1. 수진이

수진이 번호가 바뀌었다. 원래 말없이 늦는 친구가 아닌데 이상했다. 연락이 닿질 않으니 아픈 건지, 차가 막히는 건지, 오기는 오는 건지 알 턱이 없었다. 행사 시작 시각은 다가오고 수진이가 맡은 파트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 사람’이 느지막이 등장했다.

“수진이 오늘부터 안 나온다네. 내가 커버할 거야.”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와 태연하게 말하는 그 사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 일단 행사는 잘 마칠 수 있겠구나 싶었다.

다행히 행사는 그 사람의 활약으로 순조롭게 끝났다. 이제 수진이가 걱정이었다.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핸드폰 번호는 대체 왜 갑자기 바꾼 거야?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하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도, 수진이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에게도 수진이 소식을 물었지만 ‘그냥 갑자기’라는 말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년 가까이 같이 일했는데 인사도 없이 사라진 그녀가 이해되지 않았다. 책임

감도 없지, 이렇게 갑자기 잠수 타다니.

## 2. 그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부서의 에이스였다. 워낙 다재다능한 데다 이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니 회사 입장에서선 없어서 안 될 인재였다. 그 사람은 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육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론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장을 경험하는 건 대학생들에겐 큰 메리트였다. 그 사람은 워낙에 입담이 좋고 가르치기도 잘해서 학생들이 많이 따랐다. 나도 그 사람을 잘 따르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렇게 연결된 학생 중에는 나 같이 인턴십으로 일하게 되거나 아예 직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내가 교육생에서 인턴이 된 것도 그 사람의 힘이 컸다. 새로운 인턴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를 추천했고, 결국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인턴을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업무를 많이 배우고 싶다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날 믿고 인턴으로 추천해 준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3. 나

안타깝게도 인턴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사람과 둘이 사무실을 지키는 때가 많았다. 다른 사람들은 외부 촬영으로 바빴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둘만 있을 땐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다.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안마해 주겠다면서 어깨에 손을 대고, 청소기를 밀고 있으면 다가와 옆구리를 꼬집는 등 과하다 싶은 행동들을 했다.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다. 정색하자니 어색해질 것 같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싶기도 했다. 한 번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견뎌지만 불편한 시간이 쌓이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결국 다른 부서 동료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동료는 정중하게 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 사람은 내가 불편한 걸 모를 수 있으니 한번 말해 보라는 것이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참기는 힘드니 직접 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 보고 말하기는 나도 그도 꺼끄러울 것 같아 장문의 문자를 작성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겪어서 …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너무 불편함

니다.”

문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을 고쳐 보고 보내도 될까 고민했다.

‘그 사람과 계속 일해야 하는데 켄끄러워지면 어떡하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과 연관된 내 인간관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냥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50번쯤 고민을 반복했을 때 비로소 보내기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했지만, 심장을 뭉개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 같은 후련함이 더 컸다. 다행히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에 대해 언짢아하지 않았다. 내가 예전에도 그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인생의 그런 상처들은 익숙해지고 무뎌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 **4. 우리**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떠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진로 고민으로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고 둘러댔다. 그 사람과 관련된 그 누구하고도 연결되기

가 싫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꿨고,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내가 떠난 진짜 이유는 이렇다. 그는 내가 한 말을 이해하는 척했을 뿐이었다. 외려 그의 선 넘은 행동은 심해지기 시작했다. 외근 나갈 때 자기 옆자리엔 여자가 앉아야 한다며 나를 지목해서 앉히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선 내 어깨를 감싸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나의 고충을 회사에 말해 보려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상황을 아는 동료들도 쉬쉬하기 바빴다.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었다.

그곳을 떠나온 후 어렵게 수진이 소식을 들었다. 수진이가 갑자기 떠난 이유도 나와 같은 이유라는 걸 알았을 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갑자기 사라진 수진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떠나왔어야 했는지... 이제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성폭력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점점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교육이 이뤄지는 변화가 반갑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인간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절실하다.

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다. 혹시 그 사람에게 피해 받는 제2의 수진이, 제2의 내가 있는 건 아닐지 잠을 설친다. 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때론 무서운 기억이기 때문이다. 오늘 용기 내 이 글을 적는 것은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바람에서다.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힘을 뭉쳤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혹시나 나처럼 말없이 혼자 울었을, 지금도 어디선가 울고 있을 너에게 넌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잘 살아낼 것이라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잘 못 지낸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채이

스물네 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와 스물다섯 살에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직업 활동에 품었던 기대와 목표는 직무와 하등 상관없는 성희롱 사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경험은 내가 살면서 직업을 택하거나 직장에서 생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직장에서 성희롱 한번 당하지 않은 여성 직장인이라는 건, 어쩌면 일 잘하고 인성까지 훌륭한 상사보다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 이런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이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한 번 더 길을 잃는다. 상사의 성향, 경영진의 철학, 최초 발견자의 대응, 가해자의 평소 행실과 평판 — 때로는 실적 — 그리고 피해자인 나의 실적과 평소의 행실과 평판 등. 정말 다양한 것이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실은 가해 사실 여부와 피해의 경중만으로 따져야 하는 절차임에도 말이다.

나를 비롯해 성희롱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쉬웠던 피해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청렴하기로 소문난 조직이라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 걱정에 수십 번, 수백 번은 향후에 받게 될 취급을 상상하고 난 다음에야 이

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또 누군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손을 들어 불쾌함을 알린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만의 몫이어서는 안 되에도, 엄연히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게 있음에도 그렇다.

첫 직장인 방송사에서는 해외 출장이 빈번했다. 스물네 살 막내로서는 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었다. 하지만 휴일 저녁에 “소개할 어르신들이 있다”라며 불러내는 부장과 출장에 동행한 협력사 이사가 내 허리에 손을 감은 사진 앞에서도 ‘친밀함의 표시’라고 일축하는 상사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매 출장지에서의 숙소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술을 따르라”는 본부장의 시대착오적인 주사는 차라리 애교였다.

퇴직이 정해진 후 같은 대학 여자 후배가 내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 달라 말했다. 나는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내가 성희롱당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웠고, 다른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기에는 머리에 여유 공간이 없어 이렇다 할 대답 없이 넘어갔다. 그 애는 아직도 내가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살짝 미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손으로 다음 피해자를 대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의 의견도 그렇지만 주변 직장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퇴사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많은 피해자가 퇴사라는 선택 이전에 문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이 선택이 추후의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그렇다. 이는 이럴 때 작동하기 위해 만들어 둔 법적 제도들이 막상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스물네 살의 나는 그렇게 직장을 떠났다. 다음 직장은 다들 거라 믿으면서 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말이야. 긴 밤이 외로운 여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하는 건 어때?” 다음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회의실에서뿐만 아니라 C 본부에서 유일한 여성이었고, 지난 직장에서의 일 이후로 이런 성희롱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핏기가 정수리에서 발가락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전 직장에서 내가 나를 위해 충분히 싸우지 않았던 일은 아직도 후회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나를 뺀 사람들이 전부 낄낄 웃는 모습이 영화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낯설었다. 어제까지 야근 후 회

의실에서 같이 치킨을 뜯던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밤이 외로운 여자라는 농담에 낄낄대고 웃는다. 나는 저 얼굴들이 무안해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흐름을 끊었다. “제가 준비한 아이টেમ을 말하기 전에 방금 그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왜 본부장 당신이 사과해야 하는 건인지 지적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굉장히 불쾌했고 이것을 사과 없이 넘길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볼펜을 쥔 본부장의 엄지 끝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본부장의 경악하는 표정에서 이후 내가 받을 취급이 상상되었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못하겠지 생각했다.

내가 당한 ‘처분’이나 ‘2차 가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선택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말하고 싶다. 내가 한 것처럼 같이 죽을 생각으로 달려드는 ‘동귀어진’ 말고, 냉랭한 분위기나 없는 사람 취급, 업무 열외를 버티지 못해 선택하는 이직이나 퇴사 말고 현재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선택이 있나? 아침에 성추행 피해가 확인되면 저녁에 가해자 책상을 빼 버리는 회사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나의 가해자, 또 당신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며 생활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회의 이후 본부장의 방에 불려 가 2시간 동안 2차 가해를 당했다. 그 후로는 회사 1층 카페로 불려 가 부장에게 왜 이렇게 경솔하냐는 질책을 들었고, 유독 물질 취급을 받으면서 C 본부에서 남은 한 달을 보낸 이후에는 요즘 유행하는 빵의 부록 스티커처럼 B 본부의 남성 동기와 맞교환 당했다. 퇴사 전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온갖 술 취한 이들에게 불려 다니며 ‘경솔’의 아이콘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 이곳에서도 퇴사했다.

궁금했다. 나와 다른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본부장은 과연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 답은 본부 변경 이전 새 부서 상사에게 들을 수 있었다.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루하루 이 회사에서의 내 미래가 작은 궤도차에 올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할 적에 위로가 된 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나도 당했다”라는 동료들의 증언이나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안다”는 작은 관심, ‘그래도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정당성, 그리고 보다 못한 선배들의 식사 권유 같은 시간이 산소 호흡기처럼 조직 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인도적인 지지의 표시

외에 동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사석에서는 피해자를 위로하더라도, 인사부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 혹시 받게 될지도 모를 불이익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 또한 그 심정만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나마 실질적으로 도움 된 것이 있다면 실업 급여나 이전 회사 동료들이 보내 준 타 회사 공고, 내부 채용 정보, 상사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은 사인까지 해준 추천서 같은 도움의 손길이었다. 실업 급여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중 하나였지만, 나머지는 전부 근로자들의 연대로 이뤄진 것이었다. 처음부터 ‘성희롱 피해자 구제책’으로 작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 중 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없다 해도 무방하다. 일과 병행하며 따 둔 석사 학위나 틈틈이 해둔 언어 공부처럼 소위 말하는 ‘내 돈 내 산’ 능력만이 다음 일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퇴사가 거의 유일한 대처법이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들리겠지만, 조직을 떠나고 싶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는 단연코 없다.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 조직에서 지금껏 쌓아 온 것들을 잃고 싶지 않고, 그저 이곳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는 처절한 바람

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선택이 이직  
이나 퇴사 두 가지 뿐이라는 현실은 잔인하다고밖에 표현  
할 방법이 없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취해져야 할 행동으로는 크  
게 (1) 가해자와의 분리, (2) 가해자의 신속한 징계, (3) 피해  
자의 회복 지원이 있다. 아쉽게도 현행 제도로는 이 중 하  
나도 온전히 떠받치지 못한다. 설령 국가가 아닌 조직 내부  
의 장치로 이것들이 모두 이루어진다 해도, 이미 ‘내부 고  
발자’의 오명을 쓴 피해자가 이전처럼 사회생활을 하기는  
매우 힘들다. 언제 폭발할지 모를 지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말이다.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형식적인 성희롱 방지 교육에  
낭비된다. 언젠가부터 나는 “정작 교육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고 멀쩡한 사람만 열심히 듣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재  
미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재정과 생산성 면으로만 봐  
도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악이다. 오롯이 피해자, 또는 근  
로자 연대의 몫으로 남아 있는 피해 보고와 사후 처리의 부  
담은 속히 국가와 조직에도 분배되어야 한다. 젊은 근로자  
들이, 성희롱 피해자들이, 굳이 처절한 바람씩이나 품지 않  
더라도, 조직에 남게 될 것을 더 굳게 믿고 기꺼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일터를 보고 싶다.

다음 직장 면접을 볼 때는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로 퇴사했다고 솔직히 말했다. ‘당신들 생각에 내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알아서 피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었다. 탈락을 감수하고 저지른 일인데, 그렇게 말하고도 합격해서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다행히 그 후로 회사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고, 나는 가해자들이 씌운 ‘예민한 사람’의 굴레를 후련히 벗어던질 수 있었다. 굳이 이 문단을 보태는 것은, 가해자들이 뭐라건 당신을 원하고 정상적으로 대하는 일터가 있다는 걸 피해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다. 겨우 손에 넣은 ‘인정받는 일터’가 무엇보다 소중한지만 그래도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가해자들이 잘 지내지는 못했으면 좋겠다.



20대 초반 폭력으로 물들었고,  
중반 폭력에 저항하다

엘로우 애플

스물세 살이었다.

유난히 추운 겨울, 나는 모 대기업의 최연소 입사자로 취업에 성공했다. 주변의 수많은 시샘과 질투에도 행복했던 연수 기간을 마치고 부서 배치를 받았다. 기술직으로 들어왔지만, 사무 일도 함께하는 부서라 그런지 성비는 5대5 정도였다. 내 바로 옆자리의 임신한 과장님과 내 앞의 젊은 대리님, 그리고 그 옆으로 차장님 두 분과 부장님이 있었다. 임신한 과장님과 대리님을 제외하면 전부 남자였다.

정신없이 업무를 배우며 몇 주가 흘렀다. 상사분들과 꽤 사적인 대화도 했고, 동료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대체로 분위기는 밝은 편이었는데, 임신한 과장님만 유독 어두웠던 것 같다.

그날도 과장님은 차장님께 업무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장님이 갑자기 과장님에게 와이프 얘기를 꺼내며 임신 후 가슴이 커지니까 좋더라고 말했다. 순간 ‘회사 내에서 잡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과장님이 웃고 계셔서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다. 그 날 저녁, 동료들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이게 나만 기분 나쁜 문제인지 혼란스럽다고 얘기했다. 동기

중 사무직에 근무하는 언니가, 자기도 엇그제 회식에서 다른 과장님이 한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해 줬다. 요즘 과장님이 헬스장을 다니는데, 저번 주와 이번 주 사이에 헬스를 가르쳐 주는 여자 PT 선생님의 가슴 크기가 달라져서 수술한 줄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언니가 당황스러워하자 그 과장님은 언니를 보며 “이건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니까 뭐 어디 고발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줬다고 했다.

충격적인 하루였다. 첫 사회생활이라 그렇다는 주변의 충고와 조언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웃고 있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동기 언니에게 문제적인 말들을 당당하게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했다.

그 후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다. 특히 나는 사내에서도 가장 어렸고 부서에서도 젊은 여자 신입이었으므로 수많은 농담과 희롱을 들었다. 언뜻 칭찬인 듯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나에 대한 폄평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결혼 정보 회사에선 ○○ 씨 같은 여자면 A급인데. 키도 크고 몸매도 좋잖아”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 회식을 할 때면 부장님은 “술은 여자가 따라야 한다”라며 꼭 자기 옆은 전부 여자로 앉혔던 것 같다. 특히 술잔에 돈을 감싸서 나에

게 건네기도 했다.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일부는 첫 사회생활이라 내가 사회를 모른다거나, 그 정도는 약과라고 했다. 또 일부는 사내 익명 신고 시스템에 고발하라고 했다. 하지만 알아본바 사내 시스템은 지금껏 제대로 이용해 본 사람도 없었고, 일각에선 익명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일개 사원이었고, 두려웠다. 첫 사회생활을 이렇게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 나만 예민한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았다. 성희롱 발언을 듣는 과장님도 대리님도, 다들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순종적이었다. 그렇게 6개월을 다녔다.

하루는 부장님이 경찰대를 졸업한 자기 딸 얘기를 했다.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다면서 이리저리 사진을 보여 주셨다. 진심으로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가끔 술잔은 여자가 따라야 한다거나 술을 먹으면 돈을 주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사가 서울이 아니라서 서울에 있는 딸이 보고 싶다는 부장님의 말을 들으니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이 느껴졌다. 부장님은 회식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는, 집에 가려고 다 같이 식당을 나온 참에 갑자기 나를 보면서 그렇게 딸 생각이 난다는 말을 했다. 그러더니 딸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안아 보라며 갑자기 포옹을 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싫었다. 아빠보다 나이가 한참

이나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를 딸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는 해도, 우리 아빠도 아닌데 왜 나를 포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날 나와 부장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과 자세가 떠오른다. 그들은 부장님의 그런 태도에 박수를 치며 공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딸을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만 바라봐 주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날 도와줄 거라 생각했다. 앞에 있던 여자 대리님과 과장님 그리고 사원 언니는 날 도와줄 줄 알았다. 조카뻘이었던 나에게 아무도,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배신감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평평 울었다. 대학을 다니는 중간에 취직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모두가 축하해 주던 기업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나도 인지하고 있었다.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행동하기까진 정말 어려웠다. 차라리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포기하기 쉬울 것 같았다. 부딪히고 싶지 않았고, 회사 사람들은 마음속으론 나를 이해해도 걸으려는 전혀 티 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사회가 그랬다.

나는 강한 다짐과 함께 다음날 회사를 출근했다. 모두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형식적인 말들을 주고 받으며 일에 몰두했다. 정말 어이없었다. 여기서 화난 내 모습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차장님을 찾아가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해도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는 조용히 나를 사내 카페로 불렀다. 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고 했고, 원래 회사가 그런 건데 그런 회사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 하는 거라 했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그다음 주에 퇴사를 했다.

인생 첫 퇴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다행히 대학교를 휴학하고 온 상태였으므로 다시 복학을 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렇게 큰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내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나 보다.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나의 경력 사항에 따라다녔다. 졸업하는 해에 운이 좋게도 이전 회사보다는 작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지원하게 됐다. 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했냐는 질문에 성희룡 때문에 퇴사했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필드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을 쫓아 왔다는 가식으로 가득한 대답만 해댈 뿐이었다. 그런 의미 없는 말에도 화려한 이력서는 나를 뽑게 만들었나 보다. 스물다섯 살, 두 번째

회사에 다니게 됐다.

두 번째 회사는 꽤 젊은 회사였다. 그들은 나에게 수많은 일거리를 던져 줬다. 이전 회사와 다르게 농담을 해대거나 사적인 스몰 토크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 많은 일이 끝나야 집에 갈 수 있는데, 그 일들은 보통 늦은 밤이 돼서야 끝나기 일쑤였다. 워낙 일이 많은 직종이라 힘들긴 했지만, 오로지 업무에 대한 대화, 기본적인 예의와 선을 지키는 대화만 오가는 분위기가 오히려 이번 회사에 높은 만족도를 갖게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신입의 길을 지나 1년차의 막바지를 향해 갈 때쯤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왔다. 나도 더 이상 신입이 아니었다. 낯설어하는 그들의 모습과 모든 게 어려워 보이는 그들의 말투에서 첫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생각나 많이 도와줬다. 그 중에서도 데스크를 보는 여직원도 새로 들어왔는데, 고등학교를 이번에 졸업한다고 했다. 회사 전체에서 가장 어린 직원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

그러던 와중 그 데스크 직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팀장님이 가끔 몸을 만진다고 했다. 이 회사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어이없었다. 그

직원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사원분도 팀장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불편하고 싫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곧장 사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그렇게 임원진에게 사실 여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도 아직은 일개 사원에 불과했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관행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가 당사자였을 때 그토록 원했던 도움이었다. 다행히도 상담이 완료되고 나서, 그 팀장님은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배치받게 됐다.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회사 생활에서 영향이 안 갈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 절차나 법으로 해결하기를 회피할 것이다. 나도 그랬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회피하면 결국 다른 이에게 그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들이닥친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맞서 문제를 해결해 낸 스스로에게 많은 칭찬을 해 주고 싶다.

20대 초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겪어본 것 같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빨리 겪었기 때문에 내 후배에게는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주고 싶다.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용기 내서 신고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서 기인하는 범죄이므로, 사업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에 의한 성희롱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년 이내 사건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라면 민·형사상의 사법적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 전에 반드시 상담실에 문의해 법적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막상 법적 대응을 하려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성희롱, 당당히  
No라고 외치세요!

익명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던 저는 30대 후반에 경락 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한 마사지숍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락 마사지는 경락선과 혈자리를 자극해 기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마사지사야 체온과 손님의 컨디션에 따라 힘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섬세한 일입니다.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 그간 몸에 쌓여 있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 스스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손님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려 주는 필수 노동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사지하면서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제게는 삶의 활력소가 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두어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와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대뜸 “마사지는 여자한테 받아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얼마 전엔 남자한테 받았더니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기분 좋은 눈빛과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냥 농담으로 받아넘겼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고 몇 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손님은 제게 “아무래도 여자를 마사지할 때랑 남자를 마사지할

때는 다르죠? 보통 남자 몸을 만질 때 무슨 생각해요?”라고 황당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 손님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면서 혼자 껄껄 거렸습니다.

찝찝한 기분은 마사지를 끝낼 때까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10회 패키지를 결제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뵙겠다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손님의 수는 제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차마 싫은 티를 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대에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사지실 침대에 앉은 손님은 한참 제 몸을 훑어보더니 대뜸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그런데 오늘 보니 허리가 잘록하시네요. 나는 선생님처럼 허리가 잘록한 여자가 좋더라고요요!”

마사지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버렸습니다. 마치 시선으로, 말로 추행을 당한 기분이었지만 불쾌감을 겉으로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손님은 또 “선생님, 결혼하셨죠? 혹시 애인 있어요? 왜 요즘에는 애인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선생님은 몸매가 좋아서 남자들이 환장

할 것 같은데”라면서 실실 웃었습니다. 순간 수치심이 밀려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쯤 되니 ‘어떻게 이 사람을 3개월 동안 관리하지?’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후 쉼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에게 낮 동안의 일을 얘기했더니 “그냥 그러려니 해. 이 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적당히 웃어넘겨”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월급이 괜찮은 쉼이니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일단 참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저 혼자서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남성 손님은 여러 차례 불손한 언행으로 번번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마사지가 8회 차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손님의 손이 제 허리 쪽을 스쳤습니다. 마사지하다 보면 빈번히 있는 일이기에 처음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손님의 손이 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쳤습니다. 이번엔 의도가 의심스러웠지만,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의 혈을 풀고 있는데, 그 손님이 몸을 움직여 제 손에다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가져다 댔습니다. 놀란 나머지 황급히 제 손을 옮겼는데, 몇 분 후 그 손님은 또다시 몸을 움직여 제 손에 사타구니를 비볐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크

게 화를 냈습니다.

“손님, 제가 많이 불쾌하네요! 이전까진 말로 희롱하시더니, 오늘은 아예 대놓고 성추행을 하시네요. 마사지를 받으러 오셨으면 마사지만 받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저를 향해 “성추행이라니요? 그쪽이 오해하신 거예요! 딱 보니 아줌마 같은데, 내가 왜 굳이 아줌마한테 성추행을 합니까?”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오해라고요? 제 손에다 사타구니를 비비셨잖아요!”

제가 그 손님과 말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사업주가 마사지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중재를 빙자해 일방적으로 그 손님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업주는 “손님 말대로 아줌마한테 무슨 성추행을 했겠어요. 괜히 손님 오해하고 그러면 이 일 오래 못해요”라며 내게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내게 “일을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해. 손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고 소문나면 장사가 되겠어요? 당장 사과해요”라고 압박했습니다. 뻔뻔한 표정을 한 그 손님을 보고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도, 급여도 중요하지만 제가 부당하게 사과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경

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득의양양하게 서 있던 그 손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비굴한 표정으로 제게 사과를 하며, 부인과 자식들이 알면 안 된다고,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그 마사지 솜을 관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사지 솜에 취직을 했지만, 그렇다 해서 성희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전의 사례를 떠올리며 최대한 용기를 내서 진지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제가 경고하자 대놓고 솜을 움긴 손님도 있고,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를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일터에서 저를 보호하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성희롱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성희롱을 적당히 웃어넘겨야 하는 직업도 없습니다. 자신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성희롱에 맞서 당당히 No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어쩌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이것뿐

익명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곳은 꽤 큰 규모의 제조업 회사였다. 첫 출근 날 불편한 정장 차림으로 올라다 본 회사는 엄청 높고 커다란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니….’ 그동안 힘들었던 취준생 생활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까지 들었다.

회사는 경력으로 입사한 사람들과 신입생을 한 번에 교육하고 동기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30명 남짓 되는 동기 중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분도 있었고, 나보다 몇 살은 어린 귀여운 동생들도 있었다. 운이 좋게 그중 나를 포함해 동기 3명이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명은 나와 띠동갑에 가까운 선배 언니였고 한 명은 활기차고 밝은 동갑 친구였다.

첫 직장이다 보니 메일 쓰는 것부터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까지 서툴고 부족한 게 많았다. 그때마다 선배 언니는 내 메일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주기도 했다. 때로는 사수보다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기도 한,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선배이자 언니였다. 한편 동갑인 친구는 실수하면 종일 울상으로 처져 있는 나를 달래 주고, 내 연애 상담까지 해주는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인복이

많다는 생각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던 시절이었다.

꼼꼼하고 조용한 선배 언니와 밝고 긍정적인 동갑 친구, 그리고 나까지 세 명은 점심을 같이 먹고 때로는 야근과 야식을 함께하는 삼총사가 되었다. 서로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 따로 약속을 잡아 유명하다는 맛집에 같이 다니기도 했다. 삼총사 중 한 명이 우울한 날이면 어김없이 저녁에 맥주를 마시러 가는 우리만의 불문율도 만들었다.

이렇게 좋은 동료와 함께 일하는 건 즐거웠지만, 돈 버는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다른 팀과 갈등이 생기는 날도 있었고, 몇 주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아예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그보다 힘들었던 건 ‘사람’이었다. 우리를 담당하는 임원이 흔히 말하는 ‘꼰대’의 전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큰소리를 내고 성질을 부렸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누군가를 무능력하다 질책하며 샅대질하는 일도 있었다. 술자리에서는 하하 호호 웃으며 여직원들과 블루스를 춘다거나, 은근슬쩍 손을 허리춤에 대는 과감하고 끔찍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언니에게 고민이 생겼다. 문제의 그 임원과 단둘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는 것이다. 출장 목적은 전시회 관람이지만 단둘이 간다는 게 아무래도 찝찝하다는 고민이었다. 하지만 업무차 가는 것이고, 딱히

꾸지람 들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 우리는 그날도 어김없이 맥주로 음원을 보낼 뿐이었다.

양손에 병아리 빵을 든 선배 언니가 출근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런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 지났을까. 평소보다 맥주를 좀 더 마신 선배 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전시회 관람을 끝내고 술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는데 문제의 임원이 2차를 가야겠다고 다짜고짜 우겼다는 것이다. 둘만 온 출장이니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어 2차를 갔고, 그렇게 임원이 취해 가는 동안 선배 언니는 꼼짝없이 시중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앞접시를 가져다다 주고, 물을 채우고, 재미없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선배 언니가 다음날 일정을 이야기하며 숙소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 임원이 대뜸 허벅지부터 시작해 여기저기를 만져 대며 어딜 가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하필이면 둘밖에 없고, 평소에도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선배 언니는 그저 머리가 멍했다고 했다. 몇 분간 끔찍한 접촉이 이어졌고, 겨우 어르고 달랜 뒤에 숙소에 도착하자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선배 언니의 심정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아

무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선배 언니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일해야 할지 암담하며 우울해하는 것이었다. 왜 피해자가 더 괴로워해야 하는지, 왜 신고하기를 망설이게 되고 왜 더 속상해해야 하는지 한탄스러웠다. 오히려 피해자인 선배 언니는 며칠이 지나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는, 출근을 하면서도 문득 ‘내가 피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현명했다면...’같은 자책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삼총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증거를 모아 고소하거나, 인사팀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게 통쾌한 결말일 테지만 당사자인 선배 언니가 원치 않았다. 증거를 모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혹시 일이 틀어졌을 때 보복당하진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선배 언니에게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편이라는 걸,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지지할 거라는 걸 매번 이야기했다. 혼자 끙끙 앓고 속상해하지 않도록 그 날 일은 완벽히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점 또한 매번 이야기

했다. 그렇게 선배 언니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애기와 숨겨 왔던 감정을 우리 앞에서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혼자 속앓이하거나 자책하지 않도록, 언제든 자신의 편이 있다는 걸 느끼도록 지지와 응원을 표현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날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던 선배 언니도 점차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다.

우리 삼총사는 이직에 성공해 세 명 모두 다른 회사에 몸담고 있지만, 여전히 삼총사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가끔 그날, 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열불을 내기도 하고 가해자의 근황을 언짢게 공유하기도 한다.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선배 언니는 당시의 심경을 솔직히 터놓곤 한다. 끔찍한 일을 드러내서 공론화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마음도 포함해서. 선배 언니는 혼자 이 일을 되새기고 생각하며 결국 자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다. 그때 우리의 지지와 응원이 무엇보다 고마웠고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내 성희롱 관련 교육, 피해자 보호,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성희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행위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주변 동료의 응원과 지지가 아닐까 한다.

성희롱 사건, 그 결말은?

— 부장님은 왜 그랬을까?

익명

경력 10년차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정도 직급에 오르니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장, 이사, 본부장 등 나보다 더 위 직급의 남성들이었다.

나는 내 분야에서 꽤 인정받으며 일했고, 내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나보다 경력도 나이도 10년에서 20년은 많은 그들이 볼 땐, 그냥 젊은 30대 여자로만 비춰지는 듯했다. 업무 얘기만 나누고 싶은 것은 그저 나의 바람일 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외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고, 또 꺼낸다.

생김새, 옷차림, 화장법, 남자 친구 등등... 냉담한 반응을 하면 그런대로, 다른 주제나 일 얘기로 화두를 돌리면 그런대로 다 재밌어한다. 권력을 앞세워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 중, 성희롱은 가장 보편적인 정신적 고문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하루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는데, 옆을 지나가던 대표가 뜬금없이 말을 건다. 대표 왈 “○ 팀장, 우리 골프 한번 같이 치러 가자, 우리 ○ 팀장은 몸매가 좋아서 골프복이 잘 어울릴 거야.”

“저 골프 안 쳐요”라고 쏘아붙이고 대화를 끝냈지만,

대표와 같이 있던 여러 이사들은 그 농담이 재밌었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왜? 따라가서 대표님께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달라 그래” 이런 소리를 한다. 정말 일할 맛이 푹 떨어진다.

아무 맥락 없이, 일방적으로 쓰는 성희롱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다. 이사 왈,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랑 잘 해봤을 텐데, 10년만 젊었어도.” 본부장 왈, “○ 팀장은 마른 남자가 좋아? 뚱뚱한 남자가 좋아?(생략, 성적 의미의 질문).”

그동안 불편한 기색은 냈지만 크게 화를 낸 적은 없었다. ‘저런 사람이 애 아빠라니, 자기 딸이 이런 대우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가해자들과 상종하기 싫은 마음에 내가 입은 피해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이러니, 회사 자체가 문제인 것만 같고, 내가 종사하는 이 직종의 문화가 원래 이렇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그들을 한심하다 욕하며 넘긴 것이 실수였다. 내가 간과한 시간만큼 그들은 더욱 죄의식을 깨닫는 데서 멀어진다.

모 부장과의 일화이다. 외부 미팅 약속이 3시인데, 갑자기 오전 11시부터 가야 한다고 야단인 것이다. 약속 시간이 바뀐 거냐 물으니 “차 시동 걸고 있을 테니 나와라”라고 해

서 난 급하게 자료를 챙겨 따라나섰다. 조수석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준다며 몸이 훑 넘어와 놀랐고, 가다 보니 나오는 길이 이상해 불안함이 밀려왔다. “미팅 장소가 강남 아니었어요?”라고 물으니 “밥부터 먹자”라고 한다. 서울 외곽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까지도, 난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왜 여기로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잘 가늠이 안 됐다. 연유를 모른 채 점점 화가 나고 불쾌해졌다. “미팅 그대로 3시에요? 왜 시간을 말을 안 해 줘요? 어쨌든 그냥 이제 미팅 장소로 가시죠” 했더니 부장은 “커피는 마셔야지” 이른다. 커피에 와플까지 잔뜩 시킨 부장은 와플을 썰어 나에게 건네며 말한다. “아 해봐.”

“제가 먹을게요”라고만 말했을 뿐 나는 어떤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연인인 듯 행동하는 모습에 나는 그냥 얼어 버렸던 것 같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을 잡는데, 그냥 앞만 쳐다보며 손을 빼는 날 보고 귀여운 듯 웃는 그 모습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생각하면 닭살이 쭈뼛 설 만큼 소름 끼친다. 차 안에 둘이 있다는 것이 덜컥 무서워져, 공포에 꼼짝없이 굳은 나와, 들뜬 목소리로 킬킬대는 부장. 그것은 확연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이었다.

미팅까지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사무실 공간에 들어오니 무서움은 다소 풀렸지만

긴장도 풀려서인지 아까 일들이 되새겨지며 더욱 감정이 역해졌다. ‘나를 어떻게 본 거지? 내가 만만한가? 나보다 나이 많고 직급이 높으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끌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나? 손잡았을 때 화를 냈어야 했는데. 안전 벨트 때부터 한 소리 했어야 했어. 이렇게 해도 내가 짝소리 못할 거라 생각하고 이러는 건가?’ 불쾌함에 불쾌함이 덧쌓여 갔지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뭘 어떻게 대처 혹은 처리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서 머리가 까맣다.

심한 두통에 바로 조기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랑해”라고. 그런 문자를 비롯해서 밤늦게 전화를 하고, 눈이 마주치면 윈크를 하고. 일하고 있으면 와서 어깨를 주무르고 가고. 나는 충분히 단호하게 전달했다. “다시는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 불쾌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문자하고 전화하는 거, 내가 본인 와이프에게 보낼 수도 있다. 가정 파탄 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다신 그러지 말라”라며 약간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 희롱당한 것도 힘든데, 더 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도 참 힘들구나 싶었다. 그러나 내가 세계 말하면 2~3일만 몸을 사릴 뿐. 희롱과 추행은 다시 반복됐다.

회사를 이직할까 생각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서

도 지는 것 같아서 싫었다. 정말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건 싫었다.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나의 최후 선택은 철저한 티 내기였다. 부장이 나를 부르면 열 발자국 떨어져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여기서 듣겠다, 거기서 얘기하시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성희롱·성추행 관련 기관과 번호. 1588, 1599 이런 번호를 A4 용지에 짝 차게, 굵은 글씨로 뽑아 다 보이도록 이곳저곳에 붙였다. 그러자 부장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이제 성희롱이 아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막 대하는 말투로 비난, 트집을 이어갔다.

나는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다. 성적인 공격을 담은 화살은 피했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화살을 맞아야 한다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면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 내가 사직서를 내자 팀원들이 다가와 이유를 물었다. 부장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그러자 그들도 자기 일처럼 내가 당한 부정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어느 직원은 이런 말도 했다. 팀장님이 떠나면 더 이상 우릴 누가 커버해 주냐고. 짓궂은 농담이란 포장으로 외모 평가나 성적인 희롱을 하면 그래도 한마디씩 핀잔을 주는 사람이 팀장님이었는데. 그래서 더 미안했다고, 안 나가면 안

되겠느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들에게도 미안해졌다. 정말 내가 나가면 다음 타자가 생기는 건가?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끝나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그 후, 일이 재밌게 흘러갔다. 우리 회사를 비롯해, 같은 업종 계열의 다른 회사들까지도 그 부장에 대한 소문이 크게 돌았다. 신기하게도 피해자인 나의 신상이나 정보는 한 톨 없이 철저히 그의 만행만 소문으로 퍼져 나갔다. 어수선한 며칠이 흐르고 ... 대표 바로 밑의 본부장이 나를 불렀다.

협회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회사 측에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본 부장은 나에게 “직접 협회에 이야기를 한 거냐? 소문이 이렇던데 그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등의 말을 했지만 사실 확인보단 거의 비는 수준에 가까웠다. 애원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일이 커지지 않길 바라며 선처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때부터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달까. 숨 쉬듯 생각 없이 내뱉던 못된 입방정은 일절 없어졌고, 업무로 바쁘게 돌아가는 정상적인 회사 분위기가 비로소 된 것이다.

내가 배제하느라 애썼던 그 부장은 오히려 나를 피해 다니기 바빴다. 내가 불쾌함을 말했을 때는 코웃음 치더니,

심지어 네 가족에게 알릴 수도 있으니 중단하라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하더니. 협회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몸을 사리다 못해, 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니! 난 내 자리를 대체할 후임이 구해지자 그대로 회사를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더라도 다른 팀원들이 비슷한 일을 겪거나, 회롱·추행 얘기가 들리면, 전부 다 같이 협회나 센터에 찾아가겠다고며 엄포와 동시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퇴사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수난을 당했던 때의 내가 더 안타까웠다.

“부인에게 알릴 거니 그만 해라”고 전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우리 가족에게 알린다. “사적인 문자, 전화 그만해 달라”가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한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회사가 묵인하며 넘기려 한다면 관련 기관에 말해 도움을 받아 대처한다.

지금은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명쾌히 알 것 같다. 주변에 알리고 손을 뻗으면 도와줄 곳은 많다는 것,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성희롱이라는 사건의 발단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의 결말이 나야 한다. 애매하게 흐지부지하게, 가해자는 가해한

지 모른 채로 살아가거나, 피해자는 고통받으며 숨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이다. 기승전결 끝맺음에는 반성, 뉘우침, 사과, 깨달음이 동반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땐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운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며 용기를 가지고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 전하고 싶다.



375일간 걸어온  
나의 밤길 이야기

박윤정

사내 절차를 이용해 가해자의 잘못을 알리고, 직장 내에 공식적으로 보호를 요청한 지 375일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인 중징계 “강등” 처분을 받았고, 저는 분리 조치로 기존에 근무하던 기관을 벗어나 다른 곳에 배치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으니 이 사건은 끝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단 한 순간도 끝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징계 처분 이후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산재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징계가 있기까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기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산재 보상을 받기까지 정말 얼마나 어둡고 길고 막막한 밤길을 ‘눈물’로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거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 저는 여전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밤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이름 모를 다음 피해자들을 위해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성희롱 피해를 알렸을 때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와 공감’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떠올

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헤집으며 진술하고,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상처 난 마음에 상처를 더해 가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과거, 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고 잊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되풀이하고, 그 깊어진 상처만큼의 정서적 지지·위로, 상처에 대한 치유·회복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을 토닥일 마음의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고, 이토록 무너진 저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밤길을 걸어 보지 않은 사람은 피해자의 마음을 더더욱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심리·정서·사회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고, 깊이 이해해 적어도 신고 후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를 제지하기 위해서,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신고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가해자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언행을 한 것은 맞으나 신고

는 하지 마”였습니다. 신고 후 제가 겪을 시선들과 어려움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런 시선, 예상되는 어려움과 비교해 제가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 공포, 억울함이 너무나 크기에 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택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직장 근처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중년 남성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을 알게 된 어른들의 공통된 반응은 “단호하게 표현해야 한다”였습니다. ‘단호한 의사 표현’이 성희롱 예방 교육 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신고까지 한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자괴감·우울감만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375일 동안 불안감, 우울감, 공포, 두려움, 분노, 억울함 등 여러 감정이 저를 괴롭혔지만,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한 건 ‘불안감’이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분들의 인적 사항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저보다 나이도, 직급도 많고 성별도 다른 분들 일 겁니다.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희롱으로 인정될까?’,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형은?’ 신고 이후 숨을 쉴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가해자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기술하고,

진술하고, 증거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구토까지 해가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때만 해도, 조사만 끝나면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고 바로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그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가해자 징계까지 수개월이 걸리는지 처음 신고해 보는 저도 몰랐고,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었지만 식당, 복도 등 계속 가해자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보복 정도가 아니라 테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불안·공포·두려움이 컸던 저는 입원 치료를 권고 받을 정도로 적응 장애·불안 장애·우울 장애가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근무는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직장에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더 버틸 수 없었던 이유는 “퇴직하라”, “정신이 이상하다” 등의 모욕적이고, 저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발언들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고통받을 당시에는 너무 창피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계속 봐야 할 사람이기에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

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내 회사에 침 뱉기’로 느껴져 직장과 관련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가족들의 걱정이 염려되어 더더욱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에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혼자서 너무나 삭혀 왔기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랐고, 복잡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할 때 저는 더 혼자서 ‘고군분투’했고,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앓이가 그대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직장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저의 사정을 알게 되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었지만 그 응원이 제 마음에 닿기에는 이미 제가 너무 아파 버린 후였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뉴스에서만 접하는, 저와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직장 내 어려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어도 진지하게 신고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신고한 경험은 제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도, 공감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이런 고

통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처음이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도와줘야 할지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 천천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 충분히 이해·공감받고, 잘못된 인지를 바로잡고, 저만의 강점을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팠을 당시에는 제가 너무 무너져 있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임. 이에 직장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함’ 한계치를 초과했기에 신고했고,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더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신고, 산재를 포함한 375일 동안의 모든 행정 과정을 ‘혼자’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의 중심이자, 당사자인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피해자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직장과 노조에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을 신고 초기에 안내·연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와 공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고를 결심하고, 실제 신고를 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지만, 신고 이후의 과정은 더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의 대면/서면조사, 문답서/진술서 작성은 당연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필요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엄청난 정신적 부담입니다. 절망적인 사실은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법률에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나와 있으나 실제로 이뤄지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잘못도 없는 내가 힘들고, 아파서, 직장 복귀조차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깜깜하고, 막막한 밤길로 내몰았습니다.

약 5개월간의 병가를 마치고 다행히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정말 멋지게, 오히려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족쇄는 저를 무겁게 움매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의 방문, 사람과의 만남, 중년 남성의 직장

상사, 저녁 회식이 힘들고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수강은 저를 다시 과거로 보내 버립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도 저의 몸과 마음이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과거에 느꼈던 힘든 감정들과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히 떠올라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대해서도 주변에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저조차 과거와 관련된 어떤 기억·생각·이야기하는 것이 소름 끼치게 싫고, 저에게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잊어버리라고 하거나, 듣기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과거로부터 가장 많이 고통받았고,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가장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은 이 사건의 중심이자, 당사자인 바로 ‘저’인데 말이지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말고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냥 “잊어버려” 말고 ‘어떻게’ 잊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회복을 도와주십시오. 375일간 걸어온 제 밤길의 경험이 이름 모를 다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다. 더 이상 ‘홀로’ ‘고군분투’하며 ‘눈물’로 이 어두운 밤  
길을 견뎌 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 3장

##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남성의 경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박신영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처자식을 둔 몸이라 더 참고 견뎌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사의 폭언과 신경질적인 인신 공격을 이겨낼 방법은 없었다. 서둘러 제출한 사표라 아직 준비는 허술했다. 얼마간 아내의 따가운 눈치를 견디다 결국 맘에 드는 곳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작은 규모의 키즈 엔터테인먼트로 어린이 배우와 모델을 양성하는 회사였다. 마침 규모를 확장하는 시점에 합류해서 챙겨야 할 일이 무척 많았다. 그렇게 두 달 정도가 지나서야 회사가 제법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일정에 맞춰 순항하고 있었다.

즈음해 대표는 이쪽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부장을 외부에서 데려왔다. 이 바닥을 꿰뚫는 인물이라고 했다. 대표는 그를 업무 열정은 넘치지만, 융통성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었는지 부장은 제법 바른 자세로 업무를 시작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실장님, 우리 어떻게 하죠...?”

3명의 여직원으로 구성된 CS 팀 대리가 나를 찾아왔다.

너무 의아한 상황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부장이 합류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물며 그것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포악해지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40대 중반으로 미혼이었던 부장은 애인도 있었다. CS 팀과는 스무 살 정도의 나이 차이를 둔 삼촌뻘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희롱을 일삼는 성범죄자였다.

“대리 네가 팀에서 제일 예쁘더라. 세컨드 할래?”

“퇴근하고 뭐 하나? 다 애인 없잖아. 같이 술 마시자.”

“넌 가슴이 크니까 가슴이 돋보이는 옷을 입고 출근해라.”

처음엔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의 유치한 농담처럼 듣고 넘기려 했지만, 성희롱 발언이 점차 수위를 높여 갔다고 한다. 부장의 성희롱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불필요한 스킨십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몸도 마음도 몹시 지친 팀원들이 안쓰러워 보였다. 하지만, 나라고 뽀족한 수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행동하기엔 조심스럽기도 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며칠 뒤 이어진 카메라 테스트 시간. 네 살부터 아홉 살 사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그때, 그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부장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동들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부장은 남자아이들은 방치에 가깝게 멀리 두고는 유독 여자아이들에게만 과한 스킨십을 자주 시도했다. 급기야 모든 여자아이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기를 반복했다.

쏟아진 구정물을 닦아내야 했다. 부장과 면담을 준비했다. 질문과 예상 답변, 그에 대한 반박 논리들을 정리했다. 단둘만의 자리에서 부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남자끼리 왜 이러냐면서 나를 포섭하려고도 했다. 그저 동생 같아서 챙겨 주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사과는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애들 얘기만 듣고 경력 많은 본인을 포함한다고 역정도 냈다. 나는 추측과 의심이 전혀 배제된, 사실에 기반을 둔 정리된 자료를 내밀었다. 짧은 분량이지만 분명히 녹음된 내용도 언급했다. 부장의 성희롱에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준 여직원들을 대신해 상황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면담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부장은 물려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표도 어느 정도 상황은 알고 있었으나 부장의 역할이 분명했기에 쉽게 그를 내치지 않았다. 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물며 면담 이후 부장의 성희롱 행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조직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 최종 통보의 의미를 담아 부장의 행동 수칙을 정리, 통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문서에 고지했고 서명 또한 요구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그가 아니었다. 부장은 대표의 신임을 등에 업고 사태의 심각성을 폄하하기 바빴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는 키즈 엔터테인먼트의 현장에 부장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사람이었다. 부장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 회사는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결국은 썩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단이 필요했다. 무리한 총대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참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는 이상, 조직에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나와 부장 둘 중 한 명의 정리를 조건으로 걸고 대표에게 뜻을 전했다. 부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퇴사하고, 나를 잡겠다면 부장을 정리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 CS 팀원 모두 나

와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을 은근히 내비쳤다. 그러자 대표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부장은 짐을 정리했다. 대표의 뜻을 전달받고 더는 발악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차분하게 사라지나 싶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내게 전화를 걸어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남발했다. 나는 그럴수록 차분하게 대응했다.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CS 팀원들은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불편하고 힘든 긴 터널을 잘 견뎌 준 팀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그야말로 참 다행이었다.

자칫하면 다시 사표를 내야 할지도 몰랐다. 처자식을 둔 몸이라 더 참고 견뎌야 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상황들을 묵과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머니, 그러니 꼭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진원

어머니, 오랜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 된 지 만 3년을 넘어 4년 차가 되었습니다. 믿어 주시는 마음에 제가 응당 보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 하루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제가 나와 살다 보니 전화 통화로는 차마 담지 못한 일들, 그래서 응어리가 되어 버린 일에 대해 몇 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소위 ‘사회생활’이라는 네 글자가 몽뚱그려 함축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감내할 만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께 회식이 너무나 싫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왜 그렇게 회식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밥 한번 먹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업무가 아니니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편하게 먹으라”는 말과 “저녁 식사도 업무의 연장이니 빠릿빠릿하게 챙기라”는 말이 뒤섞인 자리인 회식은, ‘회식’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를 더 힘들게 하는 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음주가무가 딸려 오는 경우입니다.

제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던 일은 회사에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퇴근 한 시간 전 팀장이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해 7 과장까지 셋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잡힌 일정이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고, 불판 위에서 익어 가는 삼겹살과 저를 위해 시켜 주신 사이다 한 병을 보며 오늘 회식도 무난하게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든 것은 2차로 간 치킨집에서 튀겨진 닭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던 팀장을 보고 7 과장이 씩 웃으며 “팀장님, 오늘 노래방 가서야겠는걸요?” 할 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늦어진 퇴근에 노래방이라니, 저는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입 사원이었던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7 과장이 먼저 제 어깨에 손을 두르며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 되니 조용히 따라가기나 해.”

뻔히 보고도 고개를 돌려야만 하는 일.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맥주와 과일 안주, 그에 더해 사람을 음식처럼 주문하던 팀장의 모습은 못 본 척하기에는 너무나 거부감이 들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양심

에 상처를 입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은 그날, 때아닌 욕지기가 치밀어 올라 화장실에 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머니 회식이 안 끝나요. 5분 뒤에 꼭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집에 일이 생겼다 하고 나가려고 해요.”

별달리 더 묻지도 않으시고 아들이 고생할까 봐 알겠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저는 자리로 돌아가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는 노래를 열창하던 7 과장 옆에 앉아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5분이 되자마자 어머니는 전화를 주셨고, 저는 (이미 병원에 계시던) 친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둘러대며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나서는 때에 여성 도우미 한 분이 방문 앞에 서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늦게 전화를 주셨더라면 제가 못 본 척해야 하는 일을 정말 목격했겠지요.

일 년쯤 지난 어느 날, 임원 한 명을 모시고 또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업소 출입이 불가했던 때로 기억합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게 어머니의 전화라는 한 가지 탈출 수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노래방 가는 길에 제 담당 과장이던 2 과장이 해준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진원아, 지금 가는 노래방이 네가 보기엔 너무 거북할 것이고, 있고 싶지 않은 공간일 것이다. 그러니 불편할 때 꼭 말해 줘.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이라면 …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계획한 날에 못 갔어. 그때 접대 일정이 잡혔고 그 당시 내 팀장이 절대 빠지지 말라고 지시했거든. 그때 팀장이 도우미한테 이야기한 말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 팀장은 ‘애(ㄴ 과장) 원래는 신혼여행에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여기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대하라’고 말했어. 지금 가는 곳이 바로 그 노래방이야. 나는 이런 더러운 기억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 그때와 다르게 나는 너를 불편한 자리에서 빼줄 수 있고 너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테니, 나가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사함을 잊지 못합니다. 노래방의 접대 문화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던 저에게, ㄴ 과장이 내민 손은 너무나 고마운 연대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도착하자마자 팀장은 노래방 사장님께 도우미 두분을 불러 달라고 했고, 몇 분 뒤 ㄴ 과장이 제 가방을 챙겨 주셔서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운 좋게’ 밖에 나와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의 모습 그대로 어머

니께 전화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또 어디에서나 그렇듯, 사내의 왜곡된 성 문화,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을 묵과하는 사람들과 그런 문화를 끊어 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3년 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잘못된 문화를 끊어 내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대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일하는 이곳에서도 결국 잘못된 시각들을 하나씩 걷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성인 저도 “도우미 부르는 게 무슨 성희롱이냐”는 말을 쉽게 뱉는 잘못된 문화와 싸울 것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들이 회식을 싫어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소중히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가치들을 지켜 내며 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 하시던 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제가 5분 뒤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또 있다면 지금처럼 잊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전화를 걸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그러니 꼭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 내 몸 사용 설명서

익명

“3개월 9만 원! 소중한 내 몸,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동네에 새로 생긴 헬스장에서 보낸 전단지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전단지 속 질문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뒤 헬스장을 찾았을 때, 트레이너는 3개월 등록을 하면 PT 5회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운동을 결심한 계기를 물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싫어서요”라고 대답했다. 트레이너는 몸을 사용하는 법만 제대로 배워도 금방 체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자신했다. 몸을 사용하는 법. 어쩌면 그 방법은 진작부터 내가 알고 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진작부터 배워야 했고, 알았어야 했다.

‘젯소의 시간’이 시작된 곳은 내가 임시직으로 들어간 회사였다. 임시직으로 3개월 정도를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일을 빨리 배우게 되면서 근무 기간이 늘었다. 6개월 정도가 바쁘게 흘렀고, 그 무렵 나를 알바 개념 정도로만 생각했던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던 걸 느꼈다. 점차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를 많이 아껴 주던 선배도 생겼고, 가까워졌던 생각에 나를 함부로 대하던 직원들도 있었다. 그렇게 ‘젯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사실 불쾌함을 느낄 새도 없이 순식 간이었다. 평소 나에게 덩치가 좋단 말을 자주 꺼내던 H 부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갑자기 내 가슴에 덤실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시늉을 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상사의 장난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금요일, 팀 회식 자리에서 H 부장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주물렀다. 그것도 여러 명의 직원이 있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진 행동이라, 나는 목장 안 젖소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었다. 바보처럼 거기서 왜 나는 웃기만 했던 걸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내 가슴을 주무르던 H 부장이 말했다. 꼭 여자처럼 가슴이 풍만하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J 직원도 내 옆으로 와서 가슴을 만졌고, L 직원 역시 내 가슴에 손을 올리며 오랜만에 느껴 보는 기분이라고 킬 킬 거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불쾌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때 그 기분을 표현했더라면, 화를 내고 분노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요즘도 가끔 상상해 보곤 한다.

회식 자리에서 느낀 그 기분이 사라질 틈도 없이, 바로

다음 날에도, 또 그다음 날에도, 꽤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난 그들에게 ‘젓소’가 됐다. 그들은 화장실에서 나를 마주치면 아무렇지도 않게 가슴에 손을 얹었고, 인사를 하면 반갑다고 다가와서는 가슴을 주무르고 갔다. 간헐적으로 장난감 취급을 받은 것 같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를 위해 노력을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여유증에 대해 검색을 해 보고, 수술 방법과 후기를 찾아봤다. 가슴을 압박해 주는 남성용 보정 속옷도 구매했다. 당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노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걸 몰랐다.

몸을 압박하는 보정 속옷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평소 나를 동생처럼 아껴 주던 K 선배가 나를 옥상으로 불렀다. 우연히 H 부장과 J 직원이 내 가슴을 주무르면서 장난치고 있는 장면을 봤다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있냐고 물었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냐, 그런 게 바로 성희롱이다. 웃으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전체 회의 날이 일을 알려서 문제를 삼겠다”라면서 K 선배는 나보다도 더 분노했지만, 어쩐지 그 분노가 반갑지 않았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는데 괜히 분란을 일으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그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가 끝날 즈음, K 선배가 잠시 이야기할 게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본인

이 목격한 행동들, 또 나에게 더 듣게 돼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삭막해졌다.

“부장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K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자들끼리는 친해지면 원래 그러고 놀아요.”

“제가 아는 남자들은 그러고 안 놀아요. 그런 행동이 성희롱인 거, 모르세요?”

“K 씨 말 함부로 하네. 성희롱? 다시 한번 말해 봐! 어?”

어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 부끄럽고 창피했다.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H 부장이 나에게 물었다. 불쾌했냐고, 장난이지 않았냐고, 친해져서 그런 것 아니었느냐고. 거기서 나는 또 한 번 바보처럼 굴고 말았다. 나는 장난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불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런 나를 바라보던 K 선배의 눈빛이 또렷하게 기억난다.

그날 이후로 ‘젓소의 시간’은 멈췄고, 그 뒤로 회사에서 나는 따돌림을 당하는 듯이 묘한 분위기를 실감할 때가 많았다. K 선배 역시 내가 그 회사를 관두는 날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K 선배에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알겠다. 용기 없던 나를 대신해 용기를 내준 그 마음을 나는 외면했던 거다.

“남자인데 가슴이 나와 있어서 고민이에요.” 오랜 시간 고민 후 병원에 간 날, 나는 의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막상 듣고 보니 허무했다. 운동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문제였는데, 난 왜 항상 주눅이 든 채 어깨를 굽히고 다녔던 걸까.

다섯 번째 PT가 끝나던 날, 트레이너는 나에게 몸을 사용하는 법을 이제 좀 알겠냐고 물었다. 그 말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여러모로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누군가가 내 몸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몸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중간에 ‘젖소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꺼냈는데, 트레이너는 남녀를 떠나 다른 사람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용기를 내준 K 선배에게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그때의 나처럼 비슷한 일을 겪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나는 K 선배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요즘도 가끔 그 시절 꿈을 꾸다. 내 몸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는 채 어리석은 방법으로 ‘젓소의 시간’을 견디려 했던 그때로 돌아가, 힘들어하는 나를 만나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A.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행위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에 대한 언급은 성적 불쾌감을 줄 위험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직장 동료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직장이라는 공개적 장소가 아니라 직장 동료가 가장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거나 칭찬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시키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세심한 주의 없이 직장 동료를 나이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칭찬이 아닌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사라면 더욱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오히려 더 쉽게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모 평가보다는 업무로 칭찬을 해주세요.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이고, 누구나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

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 4장

##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 조직 전체의 문제

내가, 남이 겪었던,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일

익명

16년 전, 엄마가 근무하던 회사에 가본 적이 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무슨 일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흐릿해진 날의 일이다. 회사의 위치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 몇 층이었는지, 회사 구조가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기억은 회사에서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엄마가 회사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것 같다. 설거지를 끝내고 온 엄마에게 다가가 왜 회사에서 설거지를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엄마만 하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같이 일하는 언니 한 명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라고 했다. 어렸을 때의 나는 설거지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듣고는 ‘나중에 회사에서 나한테 설거지를 시키면 그 회사에 절대 다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9년 후, 첫 직장에 취직했던 열아홉 살. 그해 12월에 나는 회사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때 나는 설거지를 예전처럼 싫어하지 않았고, 또 내가 한참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 내가 입사한 후 2개월 뒤, 여섯 살 많은 남자분이 같은 직급의 사원으로 입사했다(편의를 위해 그를 성후 씨라고 칭하겠다). 성후 씨는 막내인데도 나처럼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2주쯤 뒤, 여자분이셨던 팀장님이 성후 씨에게 왜 나연(본인의 가명) 씨만 설거지를 하느냐고 물었다. 성후 씨는 본인은 집에서 많이 한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뱉었고, 그 뒤로도 설거지는 나 혼자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는 열 살 많은 여자분이 주임으로 입사했다. 이후 나는 새로 온 주임님과 번갈아 가며 설거지하기 시작했다. 나이도, 학력도, 직급도, 입사한 날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만약 성후 씨 혼자 설거지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어떤 날에는 회사에 손님이 방문했다.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한참 일하던 와중에 성후 씨가 차를 내갔다. 손님이 돌아가고 상무님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앞으로 성후 씨는 차를 내오지 마라”였다. 성후 씨를 제외하고는 나밖에 차를 내갈 사람이 없었지만, 상무님은 내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본인은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의미 없는 말들을 잔뜩 덧붙였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후 씨의 알겠다는 답변만 들릴 뿐이었다.

왜 성후 씨가 차를 내가면 안 되고, 굳이 급한 일을 하던 내가 차를 내가야 하는지. 손님 응대가 내 업무인 것도 아는데, 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응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때의 난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엄마는 상무님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아무래도 내가 차를 내가는 편이 보기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장님께 커피를 내가는 것까지도 오직 나 혼자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회사에 다닌 지 3년 후 나는 대리가 되었고, 막내 여자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 그러자 차를 타고 내가는 것 모두가 그 사원의 일이 되었다. 그 사원이 퇴사하고 난 후, 나도 더 이상 커피를 타려고 하지 않자 — 아예 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매일 타진 않았다 — 그렇게 사장님께 커피를 드리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루는 사장님이 살짝 눈치를 보는 듯하다가 성후 씨에게 커피 한 잔만 타달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성후 씨의 답변은 “저는 어제도 탔는데요?”였다. 물론 커피를 타드리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고, 사장님과 나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지만, 왜인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한편, 성후 씨의 답변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싫은 기색을 내비친 적 없었던 내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말이었다. 심지어 너무 바빠 쉬는 시간도 없이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커피를 드리지 않고 외근을 바로 나갔을 때는 커피를 못 드리고 나온 게 마음에 걸렸다. 사장님 역시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나에게 오늘은 커피를 안 타줬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갔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 커피를 타 드리는 건 나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왜 그런 게 나에게서는 당연한 일이었을까? 돌이켜 보면 회사에서 간식을 시키고 채워 놓고 쓰레기를 버리는 모든 잡일조차 나의 몫이었다. 성후 씨는 먹는 법밖에 몰랐다.

상황이 달라진 건 회사에 다닌 지 3년이 지나고 난 후의 일이었다. 상무님이 퇴사하고 과장님이 입사한 뒤, 간식이나 소모품 등 자질구레한 물품의 주문을 과장님이 하기 시작했다. 음식 배송이 오면 나도, 사원도, 과장님도 배달 온 박스를 뜯고 정리한 다음 함께 쓰레기를 버렸다. 과장님이 직접 하자 과장님과 친하던 차장님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성후 씨도 아주 가끔은 했던 것 같다. 어쩌면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합리한 대우를 당한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기보다,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연스레 함께하기인지도 모르겠다.

그 뒤로 2~3년이 더 흐른 지금, 내가 겪은 일들이 불합리했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 당연하게 느끼는 나를 발견한다. 내게 있었던 일이 남들에게 똑같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불합리한 일을 불합리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도 있었던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인지는, 이제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나도 먼 미래에 내 딸이 당하는 불합리한 일을 나의 엄마처럼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내 딸이 그때의 나와 비슷한 말을 나에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겨진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된 것처럼,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란다. 내가, 남이 겪었던 일이고,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겪지 않을 일들, 겪지 않아야 할 일들 말이다.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윤성원

꽤 큰 단위의 사업 제안을 맡았다. 외부에 나가 PT 발표까지 해야 하는 제안이었다. 회사에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며 편하게 하고 오라 했지만, 이 제안에 성공하면 앞으로 1년간은 신규 사업을 기획하지 않아도 되니 욕심을 아주 버릴 수는 없었다. 발표를 위해 꼬박 일주일간 야근을 했다. 이틀간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적절히 호흡을 조절해 가며 발표 연습도 했다.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잘해 보고 싶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정도로 즐기고 싶었다. 그렇게 당도한 D-Day, 제안 PT의 시간이 다가왔다. 대기실에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심장이 뛰었다. 일부러 팀장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안 될 사업’ 앞에서 부리는 괜한 센 척이었다.

PT 직전, 주관 기관 담당자가 조심스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PT 장소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발표장 안 쪽으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단상이 있어요. 단상에 있는 마이크랑 포인터를 사용해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그는 일방적으로 팀장을 보면서 말했을 뿐이다. 그는 안내의 끝에서야 비로소 나와 눈을 마주

치며 말했다. “배석하시는 거죠? 보조 발표자는 단상 옆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 순간 팀장은 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아, 발표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주관 기관의 담당자는 민망해하며 내게 다시 포인터 사용법을 설명했다. 그렇게 포인터와 마이크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발표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발표장 안에 있는 또 다른 담당자도 마찬가지였다. 팀장과 내가 들어가자 그 역시 팀장에게 다가가 포인터 사용법을 안내했다. 고요한 장내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냥 마이크를 쥐어 들었다. 내가 마이크의 머리를 툭툭 치고 나서야 담당자는 팀장을 향한 안내를 멈췄다.

단상을 시작으로 디급자로 배열된 책상에 심사 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발표를 시작하고 심사 위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지난 일주일간 저녁 시간을 반납하고 만든 현란한 발표 자료를 넘나들며 우리 회사가 기획한 사업을 설명했다. 내게 주어진 8분의 시간이 끝나 가고 있었다. 10명의 심사 위원은 기나긴 심사에 피로한 듯, 의자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고개를 아래위로 움직이기도 했다. 심사 위원이 내 발표를 잘 듣고 있는지 신경 쓰였고, 혹여나 내 발표가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 싶어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이 예민해졌다. 그러나 곧두선 신경과 달리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팀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동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제안은 실패했음을.

2차 발표에는 참석할 수 없을 테니 발표장 구석구석에 눈에 담아 두었다. 어두운 회의실에서 빛을 내는 건 맞은편에 있는 빔 프로젝터뿐이었다. 빔 프로젝터가 쏘는 빛 아래에 10명의 심사 위원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 남성인 그들은 팀장의 답변에 젖혔던 허리를 곧추세워 집중하기도 했다. 배석했던 팀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 좋지 않은 기분은 발표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나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발표장에 여성은 나와 마이크를 건네던 직원 단 둘뿐이었다. 여기에서 여성의 역할-물론 나를 포함해서다-은 너무 작아 보였다. 당연히 심사 위원은 기관 내에서 높은 지위의 인물이겠지만, 마이크를 건네며 분주히 움직이던 여성 직원의 옆에는 같은 실무자 급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도 있었다. 그는 발표자에게 참석 서명을 받는 역할을 했다.

PT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퇴근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유쾌하지 않았다. 주관 기관의 담당자는 왜 당연히 팀장이 발표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마이크와 포인

터를 당연하다는 듯이 팀장에게 건넸을까? 주차 여부를 묻는 말을 왜 당연하게 팀장에게 했을까? 그리고 주관의 실무자 중 여성은 왜 분주하고 보조적인 일을 하게 되었을까? 남성 실무자는 어떤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명을 받고 서류를 취합하는, 뭔가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일을 하는지도 궁금했다. 남성이 ‘연장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 발표장에서 겪은 묘한 기분이 모두 나이와 직급에 따른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그 기관을 욕할 수도 없었다. 애초에 우리 회사도 여성을 활용한 방식이 좋지 않았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안은 우리 회사에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 없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버리는 카드였다. 사실 이 사업의 1차 기획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으나, 그 직원의 장기 휴가로 인해 누구든 발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오래 팀장이 발표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난색을 표했지만, 부장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성원 씨가 했으면 좋겠어. 젊은 여직원이 발표하고 팀장이 질의응답하면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어?” 그렇게 부장은 내게 PT 발표를 맡겼고, 나는 그저 업무를 받아 수행해야 했다. 끝이 보이지만 해야만 하는 계류 같은 발표였다.

‘버리는 카드’를 맡느라 하는 야근 때문에 부장이 더 원

망스러웠다. 하지만 부장, 팀장보다 더 싫은 건 소극적인 내 모습이었다. 발표 자료를 만드느라 꼬박 야근을 하면서도 발표를 위해 앞장서지 않고 “그래도 발표는 팀장님이 하시는 게…”라고 얼버무린 내가 더 싫었다. 차라리 내가 만든 자료이니 가장 잘 아는 내가 발표하겠다고 하거나, 왜 안 될 사업에 여성 직원을 내세우는지 따져 물었다면 멋있기라도 했을 텐데. 고생한 것치고는 참 수줍게 일했다 싶었다.

도대체 왜 나는 앞에 나서지 않을까? 왜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두려워할까? 매번 좋은 보고서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발표는 팀장에게 미루는 이 습관이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 회사에서 나는 그냥 조용한 여성 직원, 앞에 나서지 않는 여성 직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포지션은 비단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뒤로 숨는 내 모습은, 다른 후배 여성 직원들에게도 ‘여자니까 문서 작업’, ‘여자니까 안내 업무’ 등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무릇 회사는 익숙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테니, 선배인 내가 숨어버린다면 “여자 직원은 원래 그래”라고 여성의 업무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소극적인 행동 뒤에는 후회만 폭풍처럼 밀려온다. “왜 남성 팀장이 질의응답을 할 때 든든해 보일까요?”라고 물

어볼 걸 그랬다. 혹은 “일주일 동안 발표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으니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당차게 말해 볼 걸 그랬다. 대기실에서도, 제안 발표장에서도 분위기를 깨고 말할 걸 그랬다.

“발표는 제가 합니다. 마이크는 제게 주세요.”



나는 불안하다

그린

가십. 누군가의 흥미로운 ‘관심’은 당사자에게는 호기심을 수준을 넘어 인권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사내 연애’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매일 비슷한 업무가 반복되는 ‘직장’이라는 공간의 특성 상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가십거리가 생기면 사무실 동료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직장 내 연애라는 사생활은 쉽게 주목받는 매우 불편한 경험이 된다.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기분 좋을 수 있겠다고? 사내 연애는 직장 내에서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혹여 사내 연애가 깨지거나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서로 어색한 사이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의 관심이나 눈총을 받는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이 퇴사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며, 이는 단지 연애의 실패로 인한 슬픔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상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회사 업무란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같은 부서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도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만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동료 및 타 부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평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사내 연애를 했던 내 경우, 남자 친구와의 다툼이나 사소한 일까지도 동료들에게 모두 생중계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회사 내 사람들은 남자 친구와의 연애를 알게 된 이후부터 내 연애를 업무와 연결 지어 오해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락·보고·회의가 이뤄져야 할 회사 내의 공적인 업무 관련 소통이 사적인 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이었다. 단적으로 “업무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과 사를 철저히 분리해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보통은 사랑으로 덮어 버리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헛웃음만 나왔다. 이외에도 업무상 전화를 받는데 자기들 생각에 토라진 목소리라고 느껴지면 회사 사람들은 이를 ‘연애’와 연결 지어 생각했다. 곧 “싸웠냐?”, “싸웠냐?”, “싸웠대” 하는 식으로 연쇄적인 반응이 오간다. 그렇게 소문은 돌고 돌아 나도 아닌 남자 친구

에게 “왜 싸웠느냐”라는 질문으로 가닿는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중간에 잠시나마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 둘 사이의 문제도 아닌 남들의 관심 때문에 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가 억울했던 부분은 왜 그런 문제에 관한 비난의 화살이 ‘여자’에게만 향하느냐는 점이었다. 우리 연애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데, 왜 여성에게만 조직의 일 효율을 떨어뜨리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는 오명을 씌우는지 늘 의문이었다. 만약 누군가의 연애로 인해 정말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밀도 끝도 없이 여자 탓이라고 하기 전에 말이다.

직장에서는 연애, 결혼, 구애, 스토킹,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남성과 여성,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적인 담론의 장에서의 직장은 마치 무성적인 공간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다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마치 조직 내에서 존재하지 않던 말썽들이 난데없이 튀어나와 업무상의 관계를 위협하기라도 하는 듯이 여겨진다. 그에 관한 조치는 터무니없이 허술한데, 최대한 빨리 사건이 종료되는 쪽이 선호된다. 직장에서는 성희롱이 업무상의 효율성을 해치거나 직장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는 점만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나 조직 내 개개인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따라서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 해결이란, 단지 조직 내에서 업무상의 긴장감을 일으키는 말썽이나 문제를 도려내는 방식일 뿐, 그 긴장감과 갈등의 내용은 해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 버린다. 이 경우 성희롱(사내 연애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포함한) 가해자가 처벌되고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은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직장이라는 공적 질서에 성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여성, 여성!’이 문제라는 식으로 귀결된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의 문제’라는 틀을 깨고 싶다.

내가 풀어놓은 사내 연애 경험은 사실 아주 단편적으로 축약된 얘기다. 미처 밝히지 못한, 매우 사적이고도 복합적인 얘기가 훨씬 많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몸소 깨달았던 점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가해자의 문제이고, 이는 단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희롱이 가능하게 하는 직장 문화 및 관행과 결부되어 있으며, 남성들에게 암묵적으로 묵인되거나 지지되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들 간의 네

트위크가 주도하는 직장의 조직 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성희롱 사건에서 남성은 직장 내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과 동일시되고 비가시화되는 반면, 여성은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조직에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여성이나 남성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들의 성 문화 및 직장 문화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녀를 구하려면  
매뉴얼이 절실하다

조영희

“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메신저를 통해 회사 동료가 말을 걸어왔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었으나 왠지 느낌이 싸늘했다.

‘무슨 일이지? 뭐 부탁할 게 있는 걸까?’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직이다. 지방에 있는 지사 여섯 곳을 포함하면 직원이 총 100여 명 정도 된다. 서울에만 9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그 동료는 내가 처음 입사해 15년 동안 일했던 부서에 발령받아 나와 교체되어 들어온 직원으로, 가끔 내게 업무 관련 의견을 물어 오곤 했다. 부서 이동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었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이라 이렇다 할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서둘러 건물 뒤 주차장으로 나갔다. 상기된 얼굴의 그녀는 나에게 주차장에서 이어진 계단을 가리키며 옥상으로 안내했다.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네. 최근에 정비했나 보네.”

무심한 어투로 그녀가 대답했다.

“한참 됐어. 나는 가끔 바람 쐬러 나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출근했더니, 젊은 대리 직원이 자신에게 알고 있으라며 어제 회식 후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었다. 팀 회식 후, Y 팀장이 팀 막내 직원 B와 따로 이야기를 하다가 막내 직원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했다.

“뭐? 너네 팀장이? 왜? 미쳤어? 어떡하냐?”

“몰라, 어떻게 해야 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막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 주는 것. 그리고 팀장한테는 개인적인 위로 말고는 없어. 하...”

최근 늦게 입사한 같은 팀 남자 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젊은 여직원 B는 먼저 입사했으나 계약 연장만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Y 팀장이 신경이 쓰였나 봐. 회식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면서 각자 헤어지기 전에 따로 불렀대. 아니 길거리에서 말이야. 막힌 공간은 아니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랬다는데, 아, 그 전에 내가 섭섭할 수 있으니 B를 챙겨 주라고 했거든... 괜히 그랬나. 어떡하지?”

이제 무슨 개떡 같은 상황 전개란 말인가.

매년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디다 팔아먹은 것인지. 후배의 친절을 본인의 인기나 개인적 호감으로 착

각한 것일까. 뒤통수가 빠근했다.

이후로 상황은 조용히, 그러나 긴급하게 진행되었다. 과장인 J는 Y 팀장과 20년 넘게 아는 사이였고 한 팀에서도 여러 번 근무한 바 있다. J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처분이 나기를 바랐고 B에게도 조용히 절차가 진행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 나 또한 그랬다. 아무도 모른 채 Y가 징계처분을 받고 조용히 B가 제자리로 돌아와 근무하기를 바랐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상황은 겪은 적이 없기에, 물어볼 누구도 없기에….

그러나 B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그저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다. ‘아무 조치도 없이 사건이 묻혀 버리는 건 아닌지’하는 불안감이 하루하루 커졌을 테고, B가 걱정스러운 B의 사수 선배와 동료 직원은 B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다. 진술서를 함께 쓰고 윗사람에게 함께 보고하고 법률 검토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B에게 꼭 필요한 선배가 되어 준 것이다.

나는?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B에게 좀 어떠냐고 사정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내가 힘이 되어 줄게”라는 응원을 또한 할 수가 없었다. Y 팀장에게는 어떤가. ‘미쳤군, 미쳤어. 정신이 나갔군.’ 하면서도 알고 지낸 연차가 있기에, 또한 내가 입사 이후 그에게 받은 호의가 있었기에 온전히 그

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진 퇴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J에게 전해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다.

나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이따위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의심이 들었다. 얼른 B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 물어야 하는지, 모른 척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조차 판단이 어려웠다.

만약, 다른 팀장과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태도를 취했을지 모른다. 앞장서서 징계를 목 놓아 소리치지는 않더라도 B의 편에 온전히 서서 지지했을 것이다. 힘들 때 나이 많은 직장 선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쭙잖은 충고와 함께 진심 어린 나의 마음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를 믿고 마음 놓고 기다리고 이후 벌어질 일을 함께 의논하자며 미래를 얘기했을 것이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중 사측과 직원 간의 갈등은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고 행동해야 할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직원 간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직장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위계라는 옷을 입은 사람 간에 이뤄지는 일이라 더욱 그렇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명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도 답을 찾지 못했고 사고의 진전 또한 없었다.

피해자인 B는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를 거부했고, 회사에서는 특별 휴가를 제안했다. 분리 조치의 일환이었다. 특별 휴가가 마무리되는 날이 Y 팀장의 인사를 결정해야 하는 D-day가 된 것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다. 이틀 후면 B의 휴가가 끝이 난다. 드디어 무성한 소문들 속에서 Y 팀장은 도서관으로 대기 발령이 났으며 직위가 해제되었다. 인사 조치는 했으나,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Y 팀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성희롱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은 틀림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 때문일까.

직장 내 성희롱은 사례로만 접했을 때는 간단해 보였다. 그러나 막상 겪고 보니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내 동료들이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일을 하고 시답잖은 농담을 공유하던 사람들이었다. 자는 시간을 빼다보면 남편이나 딸 같은 가족보다도 이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남녀 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보수

적인 곳이었다. 이는 그동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서일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피해자 B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서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처리하는 짐을 추가로 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는 제대로 용서를 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 B는 팀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직장의 납득할 만한 징계처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지 않았을까.

관련된 서울시 자료를 찾았다. 그중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역시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만 보는 걸까.

자료집에는 어슴푸레 알고 있던 이야기가 한결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실질적 2차 피해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게 2차 피해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동료들이 무심코 하는 이야기에 얼마나 피해자가 큰 상

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중에 B와의 식사 자리에서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의 눈빛과 가벼운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다.

2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는 무조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매뉴얼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며 예방 장치다. 이는 매뉴얼대로 잘 처리될 것이라는 피해자와의 약속이자 매뉴얼대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행위자에 대한 경고이다. 모든 직장이 매뉴얼을 잘 갖추고 살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매뉴얼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남녀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본인의 역량껏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는 남녀를 떠나 직급이 있는 상사들이 행위자, 가해자이다.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며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 연차가 쌓이며 나이는 들어 가고 직장 내 분위기에 젖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나 같은 과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회사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오 늘 오전에는 매년 연말에 시행하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정을 앞당겼다. 느리지만 조금씩 회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늦게나마 B 씨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

“B 씨, 맛있는 딸기 라떼 마시며, ‘내가 이 직장에 매뉴얼을 세운 사람이야’라며 멋지게 무용담을 펼쳐 보자. 조금만 힘들어하고 금방 다시 제자리 찾기를 바라. 선배가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해.”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상사고, 나의 부하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피해 동료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세요.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는 것은 피해 동료가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피해 동료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면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피해 동료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이 왜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부하 직원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뢰는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혼자가 아닌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랑, 아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박찬재

## 사랑, 그 달콤한 단어 속에

사랑. 한자로는 愛, 영어로는 LOVE. 누군가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간질간질해지고 달콤한 향기를 맡을 단어. 인기 드라마와 영화, TV 쇼에는 사랑에 빠진 이들이 가득하고, 뉴스와 신문은 매일 연애와 사랑에 대해 떠들어댄다. 상점 진열대는 언제나 사랑과 관련된 상품으로 빼곡하다. 이 사회는 사랑이란 이름의 꽃으로 가득 차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랑 온실이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해보자. 행인들을 붙잡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에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부탁하자. 약소하지만 경품까지 걸면 화룡점정이겠다. 설문 조사 현황판이 알록달록한 색깔 스티커로 점점 채워진다. 조사 결과,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가치는 무엇일까. 상위권에서 사랑을 발견하리란 예상은 어렵지 않다. 사랑은 많은 이들이 믿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니까.

그러니 사랑이 누군가를 희롱할 수 있다는 말은 낯설다. ‘사랑’ 옆에 놀리고 모욕한다는 의미의 희롱이 놓여 있는 장면은 당황스럽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 사회의 많은 이

들은 매일 사랑으로부터 위협받으며 살아간다. 사랑을 무기 삼아 자신을 희롱하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소설이나 영화 얘기가 아니다. 애석하게도 이건 당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최근 ‘고백 공격’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고백 공격’은 자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이 되리라는 푸념과 자조다. 외모나 능력 등이 부족한 ‘나’의 고백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자기 비하와 자괴감에서 출발한다. ‘고백 공격’을 말하는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고백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믿음처럼 모든 고백 공격이 ‘못난’ 자신을 ‘웃프게’ 풍자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백은 누군가를 정말로 공격한다.

직장은 일을 위한 공간이다. 돈, 자아실현, 명예, 그 이 유가 무엇이든 직장인들은 모두 ‘일’하기 위해 직장에 출근한다. 안타깝지만 자명한 이 사실을 모든 이들이 똑같이 이해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직장 동료나 선배, 부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고백 공격’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그 ‘고백 공격’은 온라인상에서 자조하는 이들의 푸념보다 더 무겁고 크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을 모두 집으로 들여보낸 상

사가 들연 날 불러 세운다. 그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날 자리에 앉힌다. 그러고는 자신이 얼마나 팍팍하게 사는지, 가족 문제는 또 어떤지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잠깐의 침묵. 이후 그는 내 눈을 보며 말한다. “아무개 씨, 나 아무개 씨 사랑해. 내가 아무개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앞선 상황 묘사는 끔찍하다.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그럼에도 이 묘사는 현실의 생생함과 복잡함을 거의 담아내지 못한다. 사랑과 고백의 탈을 쓴 직장 내 성희롱 현장은 이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공포스럽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절절한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그 ‘사랑’은 그저 상대를 희롱할 뿐이다. 그 ‘고백 공격’은 상대를 향한 성희롱이자 폭력이다.

사랑이 성희롱일 수 있다는 말은 많은 이들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사랑이 가진 여러 특성이 그 감각에 일조한다. 사랑스럽다 여겨지는 느낌, 로맨틱하고 달콤한 분위기. 앞선 표현들은 사랑이 가지는 감정으로서의 지위를 보여 준다. ‘사랑 = 순수한 감정’이라는 공식은 높고 단단하다. 많은 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감정인 사랑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강해질수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희롱은 더욱 빈번해진다.

“내가 좋아하겠다는데 네가 왜.”

“사랑한 게 죄입니까.”

사랑의 의미는 가해자들의 입을 통해 왜곡되고 부풀려진다. 뉴스와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문장 속에도 사랑이 있다. ‘사랑 = 순수한 감정’이라는 공식을 여러 번 곱씹어 보자. 감정으로 서의 사랑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성희롱 피해자를 옴아매는 거미줄이자, 가해자를 두둔하는 방패로 작용한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직장 내 위계와 권력의 연장선에 놓인다. 직장에서의 고백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앞선 상황 묘사에서 부장은 힘이 세다. 부하인 피해자에게 남으라고, 이야기하자고 쉽게 지시할 수 있을 만큼. 상사인 그는 피해자를 평가하고 업무에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한다. 그 권력은 부장이 자신의 고백을 ‘별것 아닌 것’(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래서 좋은 것)이라 여기게 만든다. 피해자가 그의 부탁이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수 없게 압박하기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모두 그 권력관계에 기대 작동한다. 부장의 사랑 고백이 그의 권력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판타지일 뿐이다.

## 사랑보다 사람이라는 꽃을

우리는 종종 부장이 신입 사원에게 고백했다는 소문을 듣는다.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판단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랑의 특성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다. “고백 좀 한 게 무슨 성희롱이야”라고 증얼거리게 만들고, “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지레 겁먹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한다. 모든 사랑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그저 단순한 고백’을 성폭력으로 ‘과장’한 피해자를 비난한다. 또 어떤 사람은 숨을 죽인다. 부장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다며 핑계를 대고 눈을 내리간다. 바로 그때 피해자는 고립되고 성폭력은 은닉된다. 나, 그리고 당신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 여기던 ‘아름다운 사랑’은 자취를 감추고 성희롱이라는 단어에 볼모로 붙잡힌다.

억울한가?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억울함은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 물론 현실의 벽과 두려움에 맞서기란 힘들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 피해자

가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 사랑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누구도 비뚤어진 사랑에게서, 권력에 의한 고백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피해자가 모두 쫓겨나고 가해자만이 살아남은 회사에서 당신의 안전한 미래란 불가능하다. 그 령기에 당신과 나는 지금보다 나은 직장 내 ‘반성폭력’ 문화와 엄격한 절차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STOP LOVE’라는 구호가 가득 들어찬 광장이 보인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화가 나있다. 억울한 표정이다. 평등하지 않은, 폭력적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아름 다워야 할 사랑이, 소중한 일터가 성희롱 가해자들에 의해 망가졌다며 한탄한다. 색색의 피켓과 깃발, 많은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함께 나부낀다. 상상일 뿐이지만 광장은 꽃이 한 아름 꽃힌 화단처럼 환한 빛을 낸다.

사랑은 소중해야 한다고, 일하는 사람은 안전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라면 함께 외치자. 사랑을 그만두라고. 정확히는 ‘고백 공격’을, 조금 더 명확히는 사랑과 고백의 탈을 쓴 성희롱을 멈추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이 누군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랑은 꽃이 아니라고.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빛깔로 당신의 마음을 빼앗는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람이다. 일을 하는 모든 이들, 직장인

들은 일터에 자신만의 뿌리와 줄기를 깊이 내린 채 물과 양분을 얻는다. 각자의 속도로 피었다 지기를 반복한다. 그들은 모두 한 송이 꽃이다. 직장은 그 꽃들이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피어날 땅이어야 한다.

그러니 성희롱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일을 그만두자. 껍데기뿐인 그 사랑을 꽃으로 둔갑시켜 사람이라는 진짜 꽃을 짓밟는 일을 멈추자. 그만두라고, 멈추라고 말하자. 사람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일을 지킬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해진다. 사랑, 아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병뚜껑 잘 따는 게 어때서?

익명

나는 두 가지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나, 병뚜껑을 어떤 도구로든 잘 따낸다. 둘, 어디서 배우진 않았지만, 안마도 잘한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종종 보여 주는 재밌거리다.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맥주병이 등장하면 종업원이 병따개를 가져다주기도 전에 다들 내게 병을 내밀어서 한번 보여 달라는 눈빛을 보낸다. 나는 주변에 있는 숟가락, 라이터, 젓가락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 ‘뽕’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죄증을 만족시켜 주곤 했다. 또 피곤해 보이는 이들이 찾아와 내게 등을 내밀고 어서 손맛 좀 보여 달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나는 별로 힘들지 않게 손과 팔꿈치의 현란한 기술로 피로를 풀어 주곤 했다. 이것은 사람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내가 타인에게 보내는 애정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주가 성희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십수 년 전 사원이 10여 명 남짓한 회사에 근무했을 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 회사 사원들은 대체로 스무 살 중반의 사회 초년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와 남자 대리한 명만 삼십 대 초반이었다. 나는 기획팀 대리로서 여성 팀원 2명을 둔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회사라서, 한두 개의 프로젝트로 돌아가다 보니 월급이 체불되는 건 물론이고 일에 대한 체계나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았다. 내가 입사하기 전까지 우리 팀원들을 비롯해 디자인팀과 기술팀은 소통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나 몇몇 모여 윗사람들 험담을 조금 하는 정도였다. 나는 그들을 한 달 동안 그냥 지켜보았고 천천히 가까워지려 했다. 그러다 입사 후 한 달이 되던 즈음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 성공 축하 겸 워크숍을 가게 되었다.

근교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MT 장소에 세 개의 큰방을 잡아 워크숍을 진행했다. 말이 워크숍이지 그냥 친목 도모였다. 몇 가지 놀이를 하고 저녁이 되자 큰 방에 모든 직원이 둘러앉아 술자리를 가졌다. 나는 다 같이 친해질 좋은 기회라 생각해 권해 오는 술을 모두 마셨고, 특히 여직원들과 친해지고 싶어 가까이서 대화를 나눴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사장과 이사의 소감이 이어졌다. 사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사는 회사 성장에 대한 포부와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작은 회사지만 미래가 있다는 말에 내심 안심이 되었다. 계속 말을 잇던 이사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남자 대리를 향해 말했다.

“사원이 많아지면 노조도 생기고 그럴겠죠? 그럼 O 대리가 노조 위원장 하면 되겠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노조를 언급하면서 이사가 위 원장을 미리 임명해 주는 꼴이라니. 면접 때 느낀 인상은 사장은 말이 좀 많은 인텔리인 듯했고 이사는 시니컬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술자리를 가져 보니 이사는 생각보다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노조가 생긴다면 체불임금 문제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다.

그날 이후 나는 직원들 대부분과 친해져 야근 후 회식을 여러 번 했다. 특히 우리 팀과 디자인팀 여직원 총 넷이서 자주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다 윗사람과 남자 대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본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꽤 깔끄러운 이야기였다. 그것은 대체로 눈빛이나 말투에 관한 기분 나빴이었다.

먼저 들은 말은, 사장이 전달 사항이나 잡담을 하러 와서는 자신들 자리에 바짝 붙어 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좁은 사무실 공간, 다닥다닥 붙은 책상 사이에 붙어 얘기하면 듣기 싫어도 웃으면서 대꾸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이사는 지각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직원에게 가늘게 미소를 지으며 “어제 늦게까지 데이트 했어?” 라고 물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그게 무슨 의미 일까요? 대리님!”이라며 도리어 나에게 물었다. 게다가

남자 대리는 어떤 여직원을 마음에 들어 해 메일을 보내고 선물도 주었다고 한다. 그것까지야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절의 표현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를 넘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자취하는 그 직원이 퇴근해서 집골목에 들어서니 그 남자 대리가 몰래 따라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곤 앞을 가로막으며 마음을 받아달라고 졸랐단다. 직원은 너무 겁이 나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두 번 정도 더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이사나 사장이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 대리의 일방적인 구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사무실에서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입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실들을 다 알게 된 나는 여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그런 일들은 잘못됐다는 걸 계속 알려 주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몇 년이라도 사회생활을 더 해본 내가 방어막이 되어 보기로 했다. 먼저 사장과의 개인 면담을 통해 업무 지시는 사장실로 불러 전달하도록 요청했고 사장은 이에 수긍했다. 또 남자 대리가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주겠다고 다독여 주었다. 다행히 이 일은 그 대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문제는 이사였는데, 그는 본인이 하는 말들이 꽤 수위가 높은 성희롱 발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 직원들이 재미있어 하는 줄 아는 것 같았다.

대학 시절 교양으로 여성학 수업을 듣고 인문 사회 서적을 즐겨 읽었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니 이론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들 앞에서 호기롭게 방어막이 되겠다고 했지만 나도 내 앞가림하기에 바빴다. 나 역시 밥벌이하며 생활을 이어 나가야 했고,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많아 하루하루 힘들기도 했다. 그러니 크게 선 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언행에는 모른 체하거나 웃어넘겨 버리곤 했다.

그 사이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다. 큰 프로젝트 몇 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어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하게 됐지만 좁은 사무실은 그대로라 항상 복잡거렸다. 나는 직원들과 야근 후 가지는 회식에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친하게 지냈고, 그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다.

그러다 1년이 지날 즈음, 단체 회식이 있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병뚜껑 따는 재주는 그 회사에서 아직 한 번도 보여 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내 자리 주변 직원들을 웃기려고 맥주병을 젓가락으로 따는 시범을 보여 주었다. 다들 오! 하며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했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직원도 있었다. 그런데 내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앉은 이사가 이 광경을 봤는지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잘하네. ○ 대리! 혹시 아르바이트 했어?”

나는 순간 그 의미를 간파하지 못해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그의 눈빛이 보내는 의미가 흔히 말하는 “술집에서 일했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이상하게 막상 그런 성희롱을 당하니 그 앞에서 아무런 대꾸가 안 되고 인상만 쓰고 말게 되었다. 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십수 년 전에는 이사 같은 이들의 행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분 나쁘지만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눈감아 주거나 농담처럼 지나쳐 주곤 했다. 아마 별난 사람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고 몇 달 뒤, 이사가 체했는지 아침부터 힘들어하며 약을 먹고, 참다 못해 나를 방으로 불렀다. 사장과 이사는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자 사장은 이사가 체했으니 바늘로 손을 좀 따라고 했다. 그리고 이사는 자신의 등과 팔을 좀 주물러 달라고 했다. 나의 큰 재주 중 하나인 안마가 이사 소화를 돕는 행위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애정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었다면 흔쾌히 나서서 나의 기술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상황은 무언가 묘하게 기분 나쁘고 어

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고, 바늘을 찾아 손가락에 피를 내주는 정도에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나왔다. 그날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장실에서의 그 묘한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성희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성희롱 성립 조건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나 눈빛도 해당한다는 기사를 접했고,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한 장의 문서를 만들었다.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만으로도 성희롱 조건에 해당한다는 걸 그때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 같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의도를 가졌다면 짧은 눈빛이나 몇 마디로도 피해자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는 몇 개 항목을 정리한 문서를 사무실 복사기 앞에 붙여 두었다. 출근한 사장과 이사는 당일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런 일을 저지를 인간은 나밖에 없다는 걸 눈치 챌 듯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세 개를 동시에 맡고 있던 나를 당장에 해고하진 못했다. 두 사람은 항상 눈엣가시였던 나를 지켜보다가 결국 내 위로 한 사람을 채용했고, 몇 달 후 그 사람이 업무가

손에 익자 나를 해고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친했던 직원 세 사람도 동시에 해고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해도 그냥 그만두지 않았다. 물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회사라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곳을 목과할 수 없었다.

나는 같이 해고된 세 사람과 상급 노동조합을 찾아가 상담했고, 결국 노동조합 지회를 만들었다. 이후 사장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해고 철회와 임금 체불, 야근 등 불법행위, 생리휴가 관련 문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사의 성희롱 관련 문제를 중심에 넣어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사장과 이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 투쟁은 1년 넘게 지속되다가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대부분 승소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손상을 입었지만, 결국 체당금으로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똥똥 뭉쳐 부당한 일에 맞선 좋은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한 만족감을 맛보면서 성숙했다.

지금의 나라면 그때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을까? 속단해 말할 수는 없다. 그때 그 방법들이 최선이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때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자부심은 지금도 남아 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사실 나는 그때 일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배운 것도 많았고, 내 안에 강단을 키워 준 일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상처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이 100%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나의 과거 경험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과거의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지지합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

보고

직전에 다니던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갑질, 괴롭힘이 만연한 곳이었다. 문체부 산하의 공공 기관이었는데, 국회의원 조사에서, 괴롭힘, 갑질, 성희롱 관련 설문으로 산하 기관 중 1위를 했다고 했다.

여자 팀장, 부장들은 틈만 나면 남직원들에게 팔을 부비고 얼굴을 들이밀었고, “결혼만 안 했으면 ○○이 같은 사람이랑 만났을 텐데, 완전 내 이상형이야!”와 같은 말을 수시로 해댔다. 여 부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다며 “나 오늘 결제 못 해. 이딴 걸 기안이라고 올렸어?”하고 뺨대기 시작하면 팀장은 남자 책임에게 “책임님, 오늘 점심에 부장님 비위 좀 맞춰 드려야겠어”라고 했고, 책임은 싫어하면서도 팀장, 부장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책임은 부장이 자주 옆에 와서 팔과 팔을 맞대며 “이거 나 몰라. 알려줘~”라고 콧소리를 부릴 때 그 수난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면 오후엔 부장 전격로 결재가 났다. 결재문은 수정된 사항이 없었는데도….

위 직급들은 수시로 남주임들에게는 “야 ○○ 주임, 몸매 관리 안 해? 살 언제까지 찢 거냐?”, 여주임들에게는 “임신했는데 그런 붙는 옷 입어도 돼? 사람들 눈 좀 생각

해” 등의 발언들을 했다.

당연히 나도 성희롱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입사 직후 수강하게 된 회사 내 교육에서 실습에 참여해야 했고, 지역 센터 행사 보조로 가게 됐다. 대부분의 성희롱 문제가 그렇듯 뒤풀이 시간에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

나와 다른 주임, 담당 책임 셋이 카페에 갔을 때 책임이 “예전 회사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회사가 지방 이전을 한다고 할 때 가족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여기로 이직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친구들은 지방에 여자 친구 있지, 서울에 가족 있지. 두 집 살림하는데 얼마나 부럽냐고… 나도 이제 애도 여섯 살이라 다 키웠고 여자 친구가 필요해. 나이 어린 서울말 쓰는 여자 친구. 내 와이프는 지방 사람이라서 억양이 드세고 말도 살갑게 안 하거든. 오빠 오빠 하는 여자 친구 말이야.” 하더니 “○ 주임 서울 사람이지?”라며 더러운 얘기에 나를 끌어들였다. 다른 주임도 동참하며 “요즘에는 진짜 다 그래 … 남자들은 여자 친구 만들고 싶어 하거든…”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애가 여섯 살이면 한창 아빠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무슨 애를 다 키웠다고 여자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가족한테 충실하셔야죠”라고 대답하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이게 끝이면 차라리 나왔을 걸.

회사에 돌아온 후에도 접근은 계속됐다. “○ 주임! 야근하고 갈 때 태워 달라고 그래. 다음에 내가 태워 줄게”라는 말을 들을 때면 야근을 하더라도 절대 눈에 띄지 말아야겠다 생각했고, 치마를 입고 온 날 위아래로 훑어보던 눈길이 싫어 바지만 입기도 했다. 단둘이 밥을 먹자는 제안도 당연히 거절했다.

그나마 내가 본부, 책임이 지역 센터에 있던 2019, 2020년도에는 같은 총이기는 해도 사무실이 달라 괜찮았는데 2021년이 되면서 정말 싫은 환경에 처하게 됐다. 2020년도 지역 센터의 팀장 직무 대리로 있던 책임이 갑질과 직장 내 성희롱 비공식 신고로 인해 2021년도에 본부로 발령이 나게 됐다. 본부여도 멀리 떨어진 자리였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발령 공문 며칠 후 그 책임은 팀장 대리 보직을 떼고 옆 팀 책임으로 오게 됐다. 발령받은 팀의 주임에게 몇 년 전 성희롱을 했는데, 공간이 분리되어 참고 있던 주임이 그 책임이 팀장으로 발령을 받자마자 인사팀에 보고를 해서 곧장 팀장 직무 대리를 떼고 내 옆 팀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다. 업무 연관성이 생겼고 빈 책상 한 칸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자리였는데도 그 책임은 내게 직접 말하지 않고 업무와 별개로 단둘이 밥을 먹자며 사

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고충을 알고 있던 동기들은 “절대 들어서 밥 먹지 말라”라고 했고, 나 또한 그가 싫어서 동기 한 명과 같이 있을 때 용기를 내 “동기도 아니고, 불편해서 단둘이 밥 먹는 것은 하지 않고 싶다”라고 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그럼 나가서 빵이랑 커피라도 마시자. 응?” 소름이 끼쳤다. 업무 시간에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리면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때도 있어 마찬가지로 소름이 끼쳤다.

당시 나는 입사 초부터 이어지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업무 시간에 누군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고통이 가중됐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른 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 책임을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1위 회사답게 조사원들은 조사 중에 나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조사 중 “에이 설마 이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일삼았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내가 신고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시도 때도 없는 수근거림과 함께 내가 지나가면 다 같이 주시하는 날이 이어졌다.

몇몇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며 연대해 주었지만 어리고 힘없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들어주는 사람도, 힘도 없었고,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켜 온 책임을 감싸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흘러갔다. 그렇게 심신이 지쳐 가 집에 가면 구토와 헛구역질을 달고 살기를 몇 달. 결과는 전체 무혐의였다.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은 걸 회사에서도 알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한 좌절이 컸고, 2차 가해를 방관하는 회사를 보며 더 힘들었다.

전체 무혐의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고, 노동청 등 상위 기관에 신고를 했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었다. 이 과정에서 전 회사를 관리하던 상부 기관에서 가장 낮은 직급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그를 지목했다고 한다. 파견 조사관이 “어휴 ○ 주임에게 성희롱한 책임 … 도대체 몇 명에게 성희롱을 한 건지 … 회사에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이름은 외울 수가 없는데 그 책임 이름은 외워 버렸어요”라기에 ‘다행이다. 나 말고 피해자가 많으니 이번에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몸은 계속 안 좋아져서 결과와 별개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마지막 출근 후 연차 기간 중 노동청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책임은 “○ 주임이 가난해서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조작해서 신고한 거다. 가해로 나오면 노무사 사서 소송 걸 거다”라며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얼마나 심했는지 친

한 직원들이 “뒷담화가 너무 심해 듣기가 괴롭다”고 연차 중인 내게 오히려 호소를 하는 지경에 다다랐다.

그때는 이미 이전에 지원한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와 퇴사 직후 이직을하기로 결정된 때라 실업 급여는 당연히 나와 관련이 없었지만, 터무니없는 2차 가해에 특별한 회사 조치도 없으니 이 책임의 허위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퍼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청에서 다른 팀장 관련 괴롭힘은 인정해 주었지만, 성희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 행정 종결 처리가 됐고, 회사에서는 노동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사안은 처벌할 수 없다며 없던 일로 했다. 처음으로 피신고인 조사를 받은 가해자는 몇 주 후 급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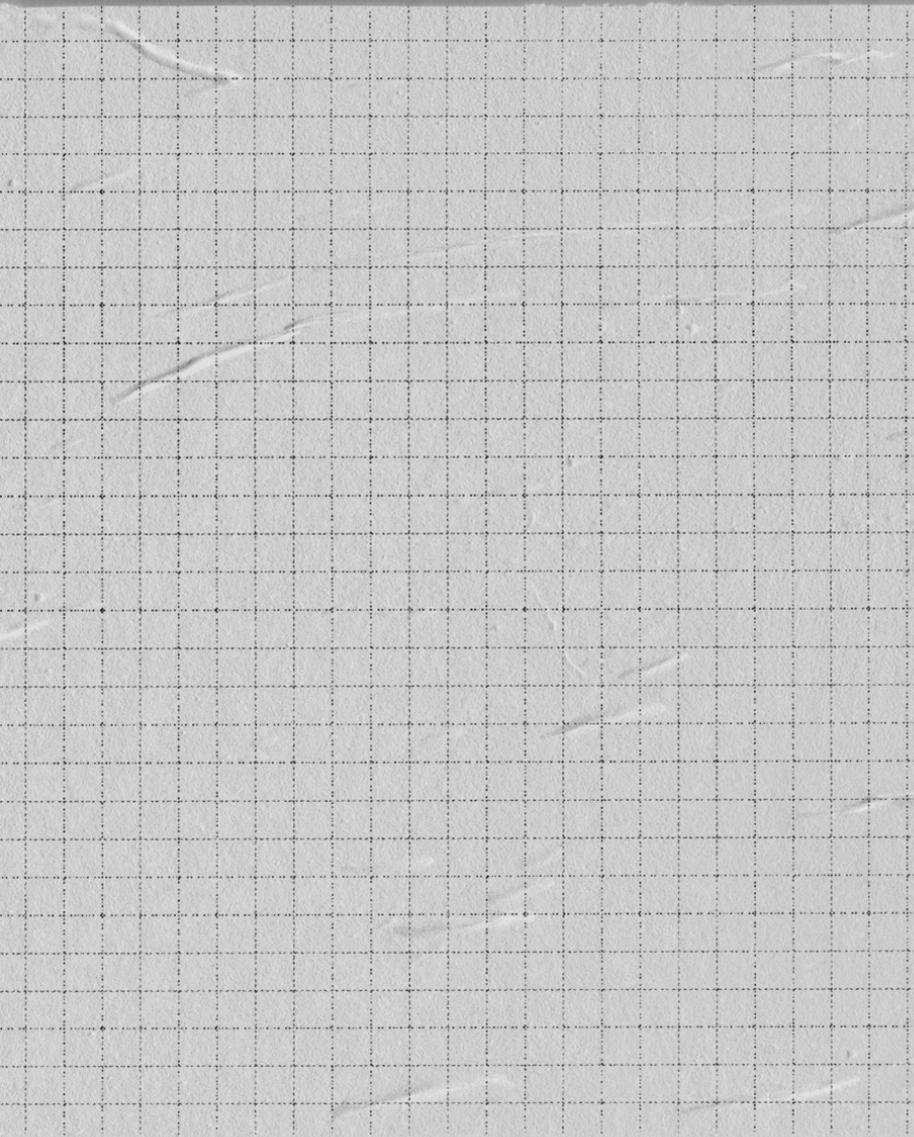
1년의 세월이 지났다. 돌아보면 너무 괴롭고 숨 막히는 시간들이다. 당시 급히 녹음만 하지 못했을 뿐, 그때그때 다른 직원들에게 보냈던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 참고인 증언까지 있었는데... 왜 노동청은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행정 종결 처리를 했을까. 왜 회사는 내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 줬을까... 공공 기관 평가 때 점수를 못 받을까 봐? 조사원들 말대로 자신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바빠서? 자기들도

사건 처리하는 게 힘들어서? 여전히 모르겠다.

알고 싶지 않았던 기업의 이기심 때문에, 오늘도 피해자는 “징계를 원치 않으니 자리만 바꿔 주세요”,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 저희 팀에만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며 절충안을 제시하고, 가해자는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여기까지는 받아 주는구나’ 하면서 자기보다 어린,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가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기관 평가이고 누구를 위한 조사관인가? 어떤 것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 것인가? 이 물음 앞에 다시 돌아가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걸 읽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런 도움이 필요했었구나’, ‘나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멈추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길 바라며 글을 써본다.

# 부록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면?

### 1. 내가 처한 성희롱 상황을 인식하고 기록해요

-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기록 남기기
- 증거 수집하기(일기, 온라인 비공개 게시물, 가족이나 친구와의 카톡, 비밀 유지가 가능한 동료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 내 몸과 마음의 상태, 회사 생활 등 주변 상황 살피기

### 2.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요

-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하기(나의 권리와 내가 겪은 일의 법적 규정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 내부 절차를 통한 행위자 징계,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배상 등이 있어요)
- 전문 상담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구체적인 대응 목표 설정하기

### 3. 결정한 목표에 따라 대응 방식을 선택해요

- 사내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취업규칙 내 성희롱 규정을 찾아 보고, 사내 고충 처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믿을 만한 상사나 동료도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 사내 해결이 어려울 때 대응하기(진정, 고소 등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보하기(내가 가진 자원과 한계를 점검해 보세요)
- \* 자원: 증거, 제도, 동료, 전문 상담 기관 등
- \* 한계: 고충 처리 기구의 부재, 성차별적 조직 문화 등

### 4. 문제 제기 시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 내 몸과 마음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 회사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요구하기(행위자와 분리 배치, 유급휴가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에 명확한 조치, 가이드라인 요구하기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지원 사업 안내

구분	지원 사업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
사업장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무료 교육 지원
	예방 및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내 규정 제·개정 마련 - 조직 문화 진단 및 조직 문화 개선 워크숍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 사건 초기 대응 자문 및 코칭 - 성희롱 사건 조사 전문가 지원 - 성희롱 심의위원회 전문가 지원
피해자 지원	법률동행지원사업	- 피해 상담 기관과 협업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대응 법률 전문가 선임 지원

여전히 일하고 있을, 일하며 싸우고 있을  
2022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 작품집

1판 1쇄 | 2022년 11월 28일

기획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펴낸이 | 정민용, 안중철

편집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심정용

펴낸 곳 | 후마니타스(주)

등록 | 2002년 2월 19일 제2002-000481호

주소 | 서울 마포구 신촌로14안길 17, 2층 (노고산동)

전화 | 편집\_02.739.9929/9930 영업\_02.722.9960 팩스\_0505.333.9960

인쇄 | 천일문화사\_031.955.8083 제본 | 일진제책사\_031.908.1407

비매품

ISBN 978-89-6437-424-5 03800